리폼드대학교 신학대학원
The General Assembly of Korean Presbyterian Church of USA
대한예수장로교회 미주합동총회 인준신학교
2012년 봄학기(신.편입)학생모집
1342 W. Adams Bl. Los Angeles, CA 90007-1635
Tel: (818)337-8280 / E-Mail: spcr113@hotmail.com

기독일보

스카이 임플란트 종합치과
24개월 무이자
36개월 무이자
각종 보험 특혜
임플란트 Dr.Lee
서울대 졸업
현재 로마린다
치대 정식교수
Tel. 213-290-7020 (웨스턴과 올림픽)

Tel. 213-739-0403 Fax. 718-228-9506
E-mail : chdailyla@gmail.com
성령께서 이끄시는 화해의 신문
WWW.CHDAILY.COM
THURSDAY, March 8, 2012 Vol.330

남가주 교계 "이번엔 반드시 동성애 교육 저지"

PRE, Class Act 서명 운동 돌입해

남가주 교계가 다시 한번 동성애 교육 반대를 위해 서명운동을 전개한다.

캘리포니아에서 승인된 SB48 법안에 반대하는 PRE 발의안과 Class Act가 주정부의 승인을 받으면서 남가주 한인 기독교계를 중심으로 한 서명 운동이 활기를 띠고 있다.

SB48 법안은 캘리포니아 내 공립학교에서 동성애 관련 교육을 의무화 하는 법안으로, 이미 발효됐으나 교과서로 제작되진 않았다. 캘리포니아의 범교계, 범사회적 단체들은 SB48 법안을 저지하기 위해 50만 5천명 서명 운동을 벌였으나 7천 서명이 부족해 무산된 바 있다.

그러나 이들 단체는 지속적인 노력을 통해 PRE 발의안을 주정부로부터 승인받았고 23일 Class Act까지 승인받았다. PRE는 'Parental Right in Education'의 약자로 부모가 원하지 않을 경우 학교로부터 이뤄지는 교육 내용을 거부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한다. 만약, 동성애 교육이 자녀에게 이뤄지려 할 경우, 부모가 거부할 수 있게 된다.

이 발의안은 동성애 뿐 아니라 공립학교에서 이뤄지는 교육 내용에 부모가 관여할 수 있게 보장하는 발의안이므로 동성애 문제를 넘어 공립학교 교육에 관심있는 부모들의 참여를 이끌어 낼 수 있다.

Class Act는 Children Learning Accurate Social Sciences Act의 약자로 사회과학에 있어서 자녀들이 정확히 배우게 하자는 취지의 법안으로 동성애, 양성애, 트랜스젠더를 교육할 때 그들의 사회 기여를 성적 정체성과 연관지어 가르치는 부분을 삭제하는 것이 목표다.

남가주교협을 비롯한 단체들은 PRE와 Class Act의 승인을 위해 50만 4760명 서명 운동에 돌입한다. 이 두가지 발의안에 각각 할당되는 서명이 50만 이상이지만 두 발의안을 동시에 서명받음을 통해 단시간 내에 두가지 발의안을 모두 통과시키는 데에 목표를 두고 있다. 이 단체들은 혹시라도 발생할 수 있는 무효표를 감안해 65만 내지는 70만 표를 4월 12일까지 받아낼 계획이다.

➡ 8면에 계속

3.1절 "기독교 인권운동 정신으로 LA 변화시키길"

93주년 기념예배 남가주한인목사회 주관으로

3.1 운동의 정신을 기리며 목회자와 지도자들이 함께 기념예배를 드렸다.

기독교 정신이 기초돼 일어났던 3.1 운동을 기념하며 남가주 교계가 기념예배를 3월 1일 영생장로교회에서 드렸다. 이 예배는 남가주한인목사회와 LA다문화총연맹이 주관하고 남가주교협과 미주총신동문회가 협찬했다.

김혜성 목사(다문화총연맹 회장)는 에스더4장 10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을 인용해 "자유독립"이란 제목으로 설교했다. 그는 "에스더가 민족을 위해 죽으면 죽으리라 했던 각오로 우리 선조들은 3.1 운동의 기초를 세우게 됐다"며 "민족대표 33인 중 절반이 기독교인이었으며 이들은 시대와 나라와 민족을 위해 일어났다"고 전했다.

이 행사에서 축사한 오스틴 뷰트너 LA부시장은 "3.1 운동은 교회가 주도한 역사적 인권 운동이었다"며 "3.1 운동의 에너지가 미주한인사회를 변화시키고 LA를 더욱 발전시키기 바란다"고 밝혔다.

예배의 사회는 남가주한인목사회 회장으로 있는 김영대 목사가 맡았고, 대표기도는 재향군인회의 최청학 장로가 맡았으며, 기념사를 총신미주동문회 회장인 강영석 목사가 맡았다. 한편, 예배 후에는 3.1절 노래 합창과 참석자들이 재향군인회 박종식 씨의 선창과 함께 만세삼창을 외쳤다. 빅터 박 기자

INTERVIEW

예배는 교회 사역의 일부? 예배의 능력을 체험하라!

앤드류 김 목사

요즘 시대엔 개척이 불가능하다 생각한 한 목사가 있었다. 그의 꿈은 좋은 스펙을 쌓아 큰 교회로 청빙되는 것이었다. 백석대학교에서 신학을 공부하고 영국으로 유학해 페이스미션바이블칼리지와 글라스고 인터네셔널 크리스천칼리지에서 공부하고 곧장 또 미국으로 유학해 풀러신학교와 아주사퍼시픽대학교에서 공부했다. 이 정도면 괜찮은 스펙이다 싶었다. 그런데 예배의 능력이 앤드류 김 목사를 붙잡았다.

그는 한인교회 EM 사역을 하면서 EM의 한계를 봤다. 사역자들은 탈진할 때까지 사역하다 결국 교회를 떠난다. 그의 마음에도 상처가 가득했고 실망이 컸다. 아무리 노력해도 교회는 부흥되지 않았다. 적은 사례비에 목양보다 생계 걱정을 해야 했다. 그렇게 17년을 EM 사역을 하다 그도 지쳐 나가 떨어졌다. 세상에서 취업했더니 생계를 넘어 정말 걱정없을 정도로 돈을 벌 수 있었다.

그냥 그렇게 살던 그를 하나님이 다시 붙잡았다. 꿈에서 그는 마라톤을 하는 사람들을 보았고 자신도 참여하게 됐다. 그런데 그는 '어차피 나는 해 낼 수 없다' 생각하고 걷기만 했다. 그러다가 최선을 다해서 한번 뛰어나 보고 그만 두자는 생각이 들어 무작정 뛰기 시작했는데 2등으로 골인했다. 그때 그는 '내가 처음부터 열심히 했으면 1등을 했을텐데' 하며 아쉬워 하다 꿈에서 깨어났다. 그는 "2세 사역이 안된다, 힘들다 하지만 다시 한번 더 해 보자"라는 힘을 얻었다. 그러면서 EM 사역으로 돌아왔고 "한국교회의 영성을 EM에 전해 보자"고 다짐했다.

➡ 3면에 계속

2면: 베리칩은 짐승의 표인가

TAX 문제 전문
자산동결 및 은행구좌 차압해결, 밀린세금삭감, 세무감사대비
전 IRS 행정관, 감사관, 수사관 40년 경력의 세법변호사, CPAs

Clients	Case (Dec/11~Jan/12)	Results
Mr.Hwang,W	IRS $62,317	합의 $8,218
Mr.Lemonnier,H	FTB $118,874	합의 $1,700
Ms.Wilson,M	IRS $450,190	합의 $20,160
Mr.Kim,H (C.Corp)	BOE	Sales Tax Audit Audit Dismissed
Mr.Rogers,A	IRS $327,280	Levy lifted & $500/mo
Mr.Farley,C	IRS $3,112,350	합의 $0

KC Choi, E.A.
TAX HELP TEAM (213) 248-0221

나라종합정비 & 바디
Nara Auto Body & Repair 사고차량 전문 바디샵
T. 323-734-4881 / (24hr) 213.247.6657
1201 S.Western Ave. Los Angeles, CA 90006 | Insurance & Rent car, 사고처리
- Smog Check
- Brake Service
- Tune-Ups
- Computer Diagnositc
- 전기계통
- 30/60/90K Service
- A/C Service
DAEWOO

귀국 자동차운송 업계최저 $950
무료전화 877-580-2424 323-582-2424
삼성통운 SAMSUNG EXPRESS
귀국이사 시내이사 타주이사 자동차운송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고객 사랑을 실천하겠습니다 www.easy2424.com

하나헬스보험 에서는
1947년 메디케어 신청을 무료로 도와 드립니다!

하나헬스에서 한인 시니어의 메디케어 신청시 도와 드리는 일
- 처방약 비용 보조 프로그램의 신청을 도와 드립니다. (EXTRA HELP PLAN)
- 귀하의 재산 그리고 소득에 따라 메디칼 신청을 도와 드립니다. (MEDI-CAL)
- 메디케어 보험료 보조 프로그램의 신청을 도와 드립니다. (MEDICARE SAVINGS PROGRAM)
- 메디케어 플랜 부족분 보충 보험을 보장 하는 메디케어 파트 C 프로그램의 신청을 도와 드립니다.
- 귀하가 복용하시는 처방약의 종류에 따라 가장 적절한 처방약 플랜의 신청을 도와 드립니다.

하나헬스는 한인 시니어의 메디케어 신청부터 메디케어 플랜 가입 후의 모든 서비스를 언제나 함께 합니다.

라디오 코리아 (1540KH) : 3월 13일 2시 "유미옥의 LIVE DESK" 생방송 인터뷰
3월 22일 11시 "아침마당" 생방송 인터뷰
라디오 서울 (1650KH) 전문가 컬럼 매주 화요일 오전 / 오후 10시 55분에
보다 많은 정보를 청취 하시기 바랍니다.

세미나 일정 : 3월 10일 (토) 오전 10시 @ 토랜스 사무실
3월 17일 (토) 오전 10시 @ 오렌지 카운티 사무실
3월 24일 (토) 오전 10시 @ LA 사무실

메디케어에 관련된 자세한 정보는 www.hanahealth.net 에서 보실수 있습니다.
한인 시니어 고객 서비스를 가장 중시하는 하나헬스건강 보험의 전화번호는
☎ 213-500-4563 ☎ 1-855-386-3088

LA 사무실 DAVID KANG 3600 WILSHIRE BL 1620LOS ANGELES, CA 90010
ROWLAND HEIGHTS 사무실 (4월 OPEN) ALLEN MIN 1722 DESIRE AVE.,ROWLAND HEIGHTS, CA 91748
OC 사무실 MI YOUNG HONG 6011 ORANGETHORPE AVE #A,BUENA PARK, CA 90620
TORRANCE 사무실 SARA IM 20695 S. WESTERN AVE #240, TORRANCE, CA 90501

찬반 분분한 베리칩 논쟁, 교계 입장도 양극화

베리칩은 짐승의 표? 과연 구원과 상관있는가?

사회에서는 의료적 편리성과 프라이버시 갈등
교계에서는 짐승의 표와 구원의 문제 갈등
성경 구절이 명시하고 있다 vs 대의 무시한 문자적 접근

베리칩은 정말 짐승의 표 666인가? 베리칩을 이식받는 사람들은 사단 숭배자가 될 뿐 아니라 구원을 얻지 못하고 영원한 심판을 받게 되는가? 현재까지 베리칩에 관해 알려진 정보는 극히 적다. 베리칩은 'Verification(확인, 증명)'과 'Chip(반도체)'의 합성어로 사람의 몸 속에 이식하는 쌀알 크기의 칩이다. 이 안에는 개인의 고유한 아이디와 생체 정보 등이 저장된다.

이 칩이 개발된 우선적 목표는 의료 때문이라 볼 수 있다. 만약 의식불명 상태의 환자가 병원으로 이송되어 온다면 의사는 그를 어떻게 치료해야 할까? 이럴 때 그의 몸 안에 베리칩이 이식되어 있다면 의사는 간단한 스캐닝만으로 그의 신원, 보험 정보, 병력 및 그간의 진료 기록까지 모두 열람할 수 있게 된다.

베리칩 이식에는 채 5분도 걸리지 않는다. 주사기에 이 칩을 넣고 손 혹은 팔에 이식만 하면 된다. 체온에 의해 자동적으로 충전이 되기에 추가 시술 없이 반영구적으로 사용할 수 있고 피이식자의 모든 정보가 디지털화 되어 병원과 공유되어 저장된다. 상당히 유익한 칩이 아니라 할 수 없다.

그런데 이 칩이 갖게 될 수 있는 프라이버시 침해는 그 유익성을 퇴색시키고도 남을 만하다. 이 칩이 갖게 되는 정보는 우선적으로 건강정보이지만 장차 개인의 금융정보까지 포함하게 될 가능성이 높다. 귀찮을 뿐 아니라 도난당할 수도 있는 현금이나 크레딧 카드를 들고 다니지 말고 간단하게 팔에 삽입된 베리칩 안에 개인 정보와 금융 정보를 통합시키면 내 몸이 곧 결제수단이 된다. 어딜 가건 손만 내밀면 결제가 되는 시대가 된다. 실제로 베리칩의 개발자들은 금융정보를 베리칩에 삽입할 계획이며 이미 유럽권에서는 광고로도 제작되어 대중의 지지를 얻고 있다.

참 편리하다. 그러나 내가 언제 어디서 무엇을 사는지가 모두 노출이 된다. 요즘은 스마트폰이나 모바일 기기로도 결제가 가능하다. 과거에는 현금을 들고 다녀야 했는데, 그것을 크레딧 카드가 대체했고 이제는 모바일 기기만 갖다 대면 결제가 된다. 전에는 구매자와 판매자만 알던 거래 정보가 모바일 기기 회사, 인터넷 회사 등 제3자에게까지 공개되는 것이다. 여기에 GPS 기능까지 더해지면 개인의 이동 경로와 언제 누구와 있었는지, 무엇을 사고 팔았는지가 모두 공개되고야 만다.

결론적으로 이 베리칩은 신분증의 역할을 한다. 베리칩을 Positive ID라고 부르는 이유도 이것이다. 생체정보를 저장하고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개인 식별과 관리가 가능하다. 범죄자 색출 및 추적에도 큰 도움이 되겠지만 무고한 시민들이 누군가로부터 자유를 심각히 침해당할 수도 있는 일이다.

그러나 미국에서 건강보험법이 본격적으로 시행되면, 일단 당뇨, 고혈압 등 심각한 질병이 있는 사람들은 모두 이 베리칩을 이식받아야 할 지 모른다. 건강보험에 가입하기 위해서도 의무적으로 베리칩을 이식받아야 할 지 모른다. 보험회사 입장에서는 수많은 사람들의 정보를 구체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나아가 보험 사기를 방지하기 위해서 반드시 베리칩을 의무화할 것이란 것이 기정사실이다. 그리고 베리칩이 보편화 되면 모든 사람들은 조지 오웰이 쓴 소설 〈1984〉에 나오는 빅브라더에게 감시되는 시스템 속에서 살아가야만 한다. 어떤 이들은 모 정치집단 혹은 세계정부가 이 빅브라더처럼 전세계인을 하나로 통치할 것이라는 다소 황당한 주장을 하기도 한다.

편리를 추구할 것인가? 자유를 추구할 것인가? 대세를 따를 것인가? 거스를 것인가?

그러나 교계에서 이 베리칩 논쟁은 여기에 머물지 않는다. 바로 베리칩이 계시록에 나오는 바, 짐승의 표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이다.

의료 목적의 칩에 왠 짐승이냐고? 충분히 설득력이 있다. 계시록 13장에 보면 "모든 자,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가난한 자, 자유인이나 종들에게 오른손이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한다"고 나온다. 베리칩은 모든 사람들이 의무적으로 이식받아야 하며 동시에 체온 충전 방식을 택하기 때문에 체온 차가 비교적 큰 오른손이나 이마에 받게 한다는 점이다. 또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니"라고 되어 있는데 베리칩이 금융 결제 수단으로 활용되면 베리칩의 유무가 매매의 중요한 선행 기준이 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14장의 "그 이름의 표를 받는 자는 누구든지 밤낮 쉼을 얻지 못하리라"는 구절은 프라이버시 침해 문제로 해석될 수도 있다. 16장에는 "악하고 독한 헌데가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에게 나타난다"고 하는데 인간의 몸에 칩이 이식될 경우, 혹은 몸 안에서 부식되거나 파괴될 경우 그것이 종기나 암으로 발달하는데 이것이 바로 악하고 독한 헌데라고 보기도 한다.

그런데 결론적으로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고 불과 유황으로 고난받게 되며", "그리스도로 더불어 천년 동안 왕 노릇" 할 수 없게 된다. 즉 구원받지 못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 모든 변론들은 일부 구절들을 요한계시록이 지향하는 구원에 대한 시각과 종말에 대한 대의를 무시한 채, 단편적으로 혹 문자적으로 접근하고 있다고 보는 이들도 많다.

먼저는 베리칩이 짐승의 표라고 주장할만한 구절들이 다수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이것은 베리칩이 짐승의 표라는 명시적 구절이 아닐 뿐 아니라 베리칩을 짐승의 표라고 전제한 상태에서만 일치될 수 있는 음모론적 주장이란 것이다.

예를 들면, 짐승의 표를 받아야 매매 행위를 할 수 있다는 구절에서 베리칩이 그런 기능을 할 수도 있지만 반드시 베리칩만이 그런 기능을 하느냐고 묻는다면 딱히 반론거리가 없다. 만약 매매를 가능하게 하는 모든 도구가 짐승의 표라 한다면 베리칩 뿐 아니라 바코드나 크레딧 카드까지 모두 짐승의 표라고 보아야 한다. 물론 바코드나 크레딧 카드가 짐승의 표로 오인되었던 시기가 있었고 또한 반대도 극심했지만 지금은 누구도 바코드나

UBM교회 주최로 열린 베리칩 관련 심포지움에는 1백여명 이상의 성도가 참석해 뜨거운 관심을 드러냈다.

TOP MEDIA
교회설교 CD제작
성가대 및 찬양대 소규모 앨범 제작
교회에 필요한 모든 미디어용품 판매
TEL. 323-265-0244 FAX. 323-265-0250
3170 E. 11th St., Los Angeles, CA 90023
www.topmediausa.com topmediausa@yahoo.com

강력한 이민 변호사 강력한 형사법 변호사 강력한 이민.항소.추방변호사
▶ 불법 체류자 문제 상담 환영
▶ 이민국이 부당하게 부결시킨분, 항소 하실분
▶ 추방위기에 처한분, 과거범죄기록있는분,
▶ 학생비자(F-1) 변경, E-2 시민권자의 배우자
▶ 종교비자, 종교이민 전문, 한국에서의 비자발급
매춘, 강도, 절도범, 경제범
도박, 마약, 음주운전, 사기
미성년범죄, 배우자 폭행
범죄기록 조회 및 말소.이혼
- 이민국의 부당한 결정으로 부결된 분
- 이민국에 항소중에 있는 분
〈부당한 해고 임료 및 오버타임 미지급〉
한국어 문의 (213)736-6696 제시카
전화 213.736.6696 / 3600 Wilshire Blvd., #1220, Los Angeles, CA 90010 Law Office of Claire H. kim & Associate.

본 대학원은 California 주정부로부터 허가받은 신학교로서 개혁주의 신학에 바탕을 두고
차세대 엘리트 교회 지도자와 사역자 양성을 목표로 설립한 신학대학입니다.

본 대학에서는 아래와 같이 2012년 여름학기 신/편입학생을 모집합니다. (5~8월)
■ 신학사 / B.TH
■ 목회학 석사 / M.DIV
■ 기독교상담학사 / B.CC
■ 신학 박사 / TH.D
■ 신학 석사 / TH.M
■ 기독교상담석사 / M.CC
■ 기독교상담박사 / D.CC

전문인 대상 정규 신학생 모집 (M.DIV과정)
▪ 특별 전형으로 엘리트반 신설

"내가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마태복음 28장 20절)
HORIZON INSTITUTE
HORIZON 신학대학원 학생모집

제출서류
1/ 입학원서 (본교 소정양식) 1통
2/ 최종학교 졸업 및 성적증명서 각1통
3/ 담임목사 및 목사 1인 추천서 각1통
4/ 신앙고백
5/ 사진(2"X2")2매
6/ 전형료 $100

특전
1/ 본교는 이민국 SEVIS에 등록되었고 I-20 FORM을 발행하여 유학비자신청함.
2/ 본교 재학생에게 장학금을 제공함
(사명이 분명한자에게는 전액 장학금 지급)
3/ 목회학 석사(M.DIV) 출신자에게는 본 대학원이 지정한 교단에서 고시 후 목사 안수함.
(본교 재학생에게 SEXOPHONE무료 강습 제공)

이사장 한천석장로 / 총장 Rev & Dr 엄기환 / Horizon 신학대학원 : 520 S. La Fayette Park Pl. #411, Los Angeles, CA 90057 / Tel: 213-736-5000 / Fax: 213-736-5115 / Cel: 213-926-5016 / www.huniv.org

크레딧 카드를 짐승의 표라고 하지 않는다. 오른손이나 이마에 받는 것이 베리칩이라고 한다면 왼손에 베리칩을 받는 것은 괜찮냐고 할 수도 있다.

베리칩에 대한 논쟁이 격화되면서 교계에서도 이에 대한 반론을 제기하고 있다. 재미고신총회 북서노회는 지난 2011년 3월 '베리칩에 관한 본 노회의 성경적 입장'이란 성명을 통해 베리칩은 짐승의 표가 아니라고 주장했다. 이 노회는 "베리칩이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바로 그 짐승의 표라는 주장은 장래 이 칩의 사용 용도가 성경이 묘사하고 있는 말세적 현상 간에 서로 흡사한 점이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일 것"이라고 전제한 후 "요한계시록 13장을 보면, 짐승의 표는 마지막 환난을 통과하면서 짐승의 권세와 능력을 보고 그를 경배하고 섬기게 된 자들에게 주어지는 표를 말하는

OC교협은 신학적 연구와 토론 끝에 베리칩은 구원의 문제와 관계없다고 발표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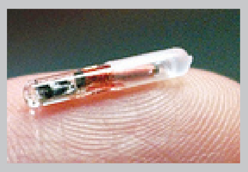
은 "특히 구원은 베리칩을 받고 안 받고의 문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느냐 안 믿느냐로 결정되는 것이기 때문에, 베리칩을 짐승의 표로 보고 베리칩을 맞으면 구원을 잃는 것으로 호도하는 것은

바코드나 크레딧 카드, 더 거슬러 올라 가면 컴퓨터가 처음 나왔을 때 이것을 짐승의 표라고 했던 이유도 신학적 고민보다는 일부 성경 구절과 현상 간의 가시적 일치성에 그 근거를 두고 있었다.

만다"고 지적했다. 그는 "'본문 안에 있는 의미를 발견한다'고 해야 말씀 그 자체가 중시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베리칩 반대론자들은 그 위험성을 어떻게든 알려야 한다는

반대론자 "위험성 알려야 한다" 절박성
찬성론자 "혼란으로부터 성도 보호해야"
인간 존엄성 침해된다면 적극적으로 반대해야



데, 짐승의 표를 받는 일은 먼저 짐승에게 신앙고백을 하는 일이 선행되어야 하는 일이고 그러한 신앙고백의 대가, 내지는 결과로 매매를 할 수 있게 되는 것"이라며 "베리칩은 그 어떤 신앙 고백적 활동을 요구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짐승의 표라는 주장에 동의할 수 없음"을 밝혔다. 또 "예수를 믿어도 베리칩을 받으면 그 구원을 상실할 수 있다는 주장은 오직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는 구원에 정면으로 대치하며, 외부의 어떤 힘을 인하여 구원을 상실할 수 있다고 말하는 것은, 곧 십자가 피의 공로를 사단의 능력이 압도할 수 있다는 잘못된 가르침"이라고 설명했다.

OC교협도 지난 2011년 7월 성명에서 "베리칩에 관한 오해로 인해 교계와 교회, 성도들에게 영적 혼란을 주며 두려움을 주고 있음에 주목해 왔다"라면서 "베리칩이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짐승의 표라는 주장은 전혀 사실무근이며 무지한 주장이요, 성도들로 하여금 잘못된 종말론을 심어 주려는 사탄의 계략"이라고 결론지었다. OC 교협

미혹의 영에 사로잡힌 잘못된 성경해석이요, 이단성 해석임을 천명한다"고 밝혔다.

이 두 단체는 모두 베리칩과 구원의 문제를 연결시킴에 있어서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그를 믿는 것이 구원의 핵심이기에 베리칩이 그 구원의 의미를 퇴색시키거나 무효화 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이재하 목사

물론 항간의 주장처럼, 베리칩이 인간의 유전자를 변화시킨다든지, 사람의 정신세계를 조종한다든지 하는 것은 명백한 허위 사실이지만 베리칩 논쟁의 핵심이 구원에 있다면, 결국 이 문제는 신학적으로 논의되어야 하는 것이다.

그러나 과연 구원에 관한 문제, 종말에 관한 문제를 인간이 신학으로만 분석하는 것이 가능할까? 이 문제가 다분히 신학적 논쟁임을 시인하는 이들도 "예를 들면, 구원받았다고 스스로 믿어 베리칩이 짐승의 표인 줄 알고도 받았을 경우, 이것이야말로 짐승 앞에 절한 것이 아니냐"고 반론을 제기한다.

최근 남가주를 방문해 베리칩에 대한 신학 심포지움을 개최하기도 한 이재하 목사(중앙대 교목, 보스톤대학교 신학박사)는 이에 대해 신중한 접근을 요청한다. 미국을 대표하는 진보적 신학 교육을 받은 그이지만 그는 "성서 본문에 대한 존중"을 해답으로 내어 놓았다. 그는 "성경을 상징이나 비유라고 풀어서는 안된다. 그렇게 되면 본문보다 상징의 대상이 더 중시되고야

절박함을 갖고 있고 베리칩 찬성론자들은 목회적인 마음으로 성도들을 혼란으로부터 보호하고 싶은 마음이 있었을 것"이라 전제한 후, "베리칩이 666이라고 성급하게 주장하는 것도, 또 아니라고 주장하는 것도 옳지 않다"고 했다. 그는 "베리칩이 짐승의 표라고 주장할만한 심증은 있을 수 있지만 단적으로 베리칩이 짐승의 표, 받으면 구원받을 수 없게 된다고 주장할 수도 없다. 따라서 우리는 깨어 경계하고 기도하며 이 베리칩 문제를 주목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그러나 그는 "베리칩이 존엄성을 가진 인간에게 강제된다는 점에서 우리가 반드시 거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미국에서 의료보험개혁이라는 명목으로 베리칩을 강요할 법이 이미 제정되었고 한국도 곧 법안이 상정될 것"이라며 "개인의 자유로운 의사결정권을 침해하는 이 악법에 반드시 대항해야 하며 이 악법은 결코 짐승의 표와 무관할 수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준형 기자

〈인터뷰〉 앤드류 김 목사

UBM교회의 앤드류 김 담임목사가 교회의 비전과 사역에 관해 설명하고 있다.

그 방법은 바로 "예배"라고 생각했다. 한국교회의 새벽예배, 철야예배를 EM에 도입한 것이다. 그런데 6개월만에 EM이 달라지기 시작했다.

2세들이 강하게 도전받고 금식하고 철야기도 하면서 성령을 체험하고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했다. 선교사로 헌신하고 삶을 하나님께 드리기 시작했다. 그도 너무 놀랐다. 한번 철야기도가 시작되면 5시간씩 기도하고 말씀을 묵상하게 됐다. 하루 종일 찬양하게 됐다. 13명 뿐이던 EM은 금새 50명으로 늘어났다. 자녀들이 늘어나니 부모들도 늘어났고 자녀들이 철야하니 부모들도 철야하게 됐다.

"우리만 부흥해선 안되겠다" 싶어 다른 교회들까지 초청해 이 모임이 연합집회로 발전했다. 방학 때에는 수련회를 못 여는 작은 교회를 위해 연합수련회도 열었는데 한번 할 때 200여명이 참여할 정도로 뜨거운 반응을 얻었다.

그는 예배의 힘, 젊은이의 힘을 봤다. 그리고 모델로서의 교회를 꿈꾸며 1년 전 UBM교회(United Breakthrough Ministries)가 창립됐다. 이 교회는 하루종일 예배하는 교회다. 매일 오후 2시부터 저녁 늦게까지 집회가 있다. 성도들은 말씀을 듣고 계속 예배하고 찬양하는 것이 일상이 됐다. 주일예배는 2차례 드리는데 한번에 3시간씩 예배한다. 예배가 길면 싫어 한다고? 아니다. 1년만에 성도가 100여명으로 부흥했고 청년부터 장년까지 다양하게 구성돼 있다. 새 성전으로 이전한 후에도 매주 몇 가정씩 교회를 찾아 온다.

UBM교회는 자녀, 청년, 노년이 함께 예배드리는 3세대 예배를 지향한다. 자녀들은 예언하고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노년들은 꿈을 꾸는 교회다. 청소년, 청년들이 헌신해서 예배를 인도하고 뜨겁게 참여하는 교회다. 초등학교 6학년이 초등학교 3학년에게 성경을 가르치는 교회다. 어메리칸 드림을 이루는 교회가 아니라 킹덤 드림을 이루는 교회다.

김 목사는 "노년이 꾸는 꿈을 청년들과 자녀들이 이루려면 1세의 영적 유산과 2세의 영적 잠재력이 만나야 한다"며 "1세들의 영적 유산이 전달만 된다면 2세들은 세상보다도, TV보다도, 돈이나 명예보다도, 하나님을 위해 인생을 드리고자 하는 열심과 그것을 해낼 잠재력을 갖게 된다"고 설명했다.

문의) 14415 Imperial Hwy. Whittier, CA 90604
Tel: 562-903-2600

김준형 기자

여성들이여 이방에 정의를 베풀라

2012년 세계기도일 예배 성황리 드려져

세계기도일 예배에서 말레이시아를 위한 기도에 남가주 지역 교회 여성들이 한 마음을 모았다.

말레이시아를 위한 기도에 남가주 교회 여성들이 하나됐다. 지난 3일 오전 올림픽장로교회에서는 한인교회여성연합회 남가주지부에서 주최하는 세계기도일예배가 있었다.

올해 교회 여성들은 말레이시아를 위해 기도했고 이 나라 여성들이 준비한 기도문을 나누고 중보기도 했다.

교단과 교파를 초월해 총 150여명의 여성들이 참석했으며 카이로스워십댄스(단장 김민경)와 기독여성합창단(단장 장영순), 여성매스터코랄(김광숙 외 3인)이 특별찬양을 불러 은혜를 더했다.

설교는 미주송현성결교회 황 에스더 목사가 맡았다. 황 목사는 이사야 42장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을 인용해 '정의의 영 예수 그리스도'라는 제목으로 설교했다.

황 목사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의 것이다"라고 전하며 "예수 그리스도만이 정의를 실현할 분이기에 우리가 그리스도께 속해 있는지 다른 것에 속해 있는지 자신을 점검해야 한다"면서 "세계기도일을 맞아 여러분 모두가 성령을 받아 예수 그리스도께 속해 이방에 정의를 베푸는 여러분들이 되길 바란다"며 설교를 마쳤다.

한편, 사회는 남가주지부 회장인 최미란 권사가 맡았고, 중보기도 인도는 ANC온누리교회 석승연 권사가, 봉헌기도는 동양선교교회 홍수지 권사가 맡았다.

빅터 박 기자

세리토스장로교회
늘푸른대학에서 제2의 인생 시작

5년째 진행되고 있는 세리토스장로교회의 늘푸른대학에는 활기가 넘친다.

2008년부터 한결같이 실버 세대를 섬겨온 교회가 있다. 세리토스장로교회다. 늘푸른대학이란 이름에서부터 활기와 젊음이 느껴진다. 학감 김홍식 목사는 "소외되고 외로운 실버 세대를 일주일에 한 번만이라도 주님 안에서 섬기자는 취지에서 기도로 준비한 후 5년 전 오픈했다"고 설명했다.

65세 이상 남녀가 대상이며 2월부터 5월이 봄학기, 6월부터 7월이 여름학기, 9월부터 12월이 가을학기다. 매학기마다 효도관광과 발표회가 있어 재충전과 성취감을 실버 세대에 드린다. 각종 특강과 건강체조, 컴퓨터, 찬양무용, 서예, 그림 등 13개 클래스가 준비돼 있으며 매학기 160여명이 등록한다. 교회 측은 대부분 불신자이거나 다른 교회 성도라고 설명했다.

이 학교의 학장으로는 김한요 담임목사가 섬기고 있으며 성도들이 식사와 차량 봉사를 자원하고 있다.

빅터 박 기자

극동방송 LA지사장에
김준원 목사 취임

극동방송 LA지사장 취임예배를 드렸다. 사진 제일 앞줄 가운데가 김준원 지사장이다.

한국 극동방송(FEBC, 이사장 김장환 목사, 사장 민산웅 장로) 상무 김준원 목사의 LA지사장 취임 감사모임이 3월 3일(토) 오전 11시 라미라다에 있는 FEBC 방송국에서 열렸다.

극동방송 미주지사 전 직원이었던 손재열 전도사의 인도로 시작한 1부 예배는, 극동방송 복음성가경연대회 출신으로 우간다 선교사를 역임한 후 LA에서 목회하고 있는 오서택 목사(은혜비전교회)의 기도와, 꿈이있는자유의 정종원 목사(IAM Church)의 특송으로 이어졌다.

이어 80~90년대 극동방송 PD 및 아나운서로 사역했던 이동진 목사(그리스도인닷컴 대표)가 'Jesus is Christ, Jesus is Media (빌 2:6~8)'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한 후, 80년대 후반 극동방송에서 문화사역자로 동참했던 인진한 목사(Crossmanship Foundation)의 축도로 1부 예배를 마쳤다.

이어서 이동진 목사의 사회로 진행된 2부에서는 신임 지사장 김준원 목사가 인사말을 했는데, 김 목사는 80년대 유학 와 LA 밸리 지역에서 목회하던 이민목회자로서의 삶과 남아프리카공화국 선교사로서의 삶을 고백하면서 그후 한국 극동방송으로 돌아와 사역한 과정과 앞으로 미주지사의 방향 및 방송사역 등에 대해 설명했다.

계속해서 극동방송 미주지사 운영위원장 제임스 방 변호사를 비롯한 참석자 소개에 이어 지명현 전도사(소리엘)의 식사기도 후 식사와 교제를 나누었다.

이날 감사모임에는 극동방송과 아세아방송에서 일했던 전 직원들을 비롯해, LA 지역 목회자와 찬양 사역자들이 참여해 김 지사장의 취임을 축하했다.

'방송으로 그리스도를 전세계에'라는 표어 아래 지난 56년간 올곧게 복음을 전해온 극동방송은 그동안 LA지사를 통해 행정적인 업무만 진행해 왔는데, 김준원 지사장은 "스테이션을 구입할지 다른 방법을 사용할지 연구 중"이라며, "새로운 미디어 시대에 걸맞는 방송 컨텐츠 제작과 방송을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선승민 기자

남가주사랑의교회 새생명축제
담장 너머로 뻗은 나무

박효진 장로 초청해 16일부터 18일까지

남가주사랑의교회가 오는 3월 16일부터 18일까지 교도소 선교의 대명사 박효진 장로를 초청해 '담장 너머로 뻗은 나무'라는 주제의 새생명축제를 연다. 16일 오후 7시 30분, 17일 오전 6시 20분, 오후 7시, 18일 주일예배 시에 집회가 있다.

박효진 장로

박 장로는 청송감호소에서 서울구치소를 거쳐 현재 소망교도소까지 재직하며 많은 흉악범들과 사형수들을 주께 인도해 왔고 서울 명문교회(이덕진 목사) 시무장로로 국내외에서 집회를 열고 있다.

교회 측은 "우리 교회는 매년 새생명축제를 열고 주님을 모르는 영혼들과 복음을 나누고 있다. 성도들은 1년동안 품고 기도했던 태신자들을 이 집회에 인도해 복음을 듣게 한다"고 설명했다.

또 "주님께서는 한 영혼도 포기하지 않으신다는 것을 이번 집회를 통해 전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빅터 박 기자

아직 늦지 않았다! 단합된 저력 보여 주자!

지난 1일 목요일 오후 2시경 JJ그랜드호텔에서 Koreatown Redistricting Group이 주최하는 합동 기자회견이 열렸다.

코리아타운 최종 선거구획안 관련 기자회견 열려

코리아타운 최종 선거구획안 투표가 이제 얼마 남지 않았다. 원래는 6월까지 시간이 있었는데 허브 웨슨 시의장의 요청에 의해 2주 뒤로 앞당겨졌다. 지난 1일 목요일 오후 2시경 JJ그랜드호텔에서는 이와 관련해 Koreatown Redistricting Group(KRG)에서 주최하는 합동 기자회견이 있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남가주교협, 한미연합회, 윌셔센터-코리아타운주민의회, 한미민주당협회, 파바월드 한미변호사협회, 한인기독교커뮤니티개발협회 등이 참여했다.

이들은 최종 선거구획안 투표를 앞두고 7일과 16일 각각 오전 9시 시의회 본회의에 최대 1000명의 한인들을 동원시켜 시의원들에게 한인 커뮤니티의 입장을 전달할 계획이다. 또한 타이, 필리핀 등 소수계 아시안 커뮤니티와 라틴계 단체들과 연대해 한인타운을 13지구로 편입시키라는 요청서를 시의회에 발송하고 시의원 15명과 개별면담할 계획이다.

이날 KRG 데이빗 류 대표는 "이런 말도 안되는 상황 가운데 한인들이 침묵한다면 저들은 더 한인타운에 대해서 무관심할 것이다. 이곳에는 쉴만한 공원 하나도 없고, 방과 후 어린 학생들이 안전하게 공부할 수 있는 공간도 없는 실정이며, 노인들이 이민생활에서 겪는 어려움들을 전문 기관에 찾아가 호소할 곳도 없다"며 "그동안 우리가 힘을 합쳐 우리의 목소리를 낸 것에 대해서 LA타임즈나 LA데일리 등 주류 언론에서도 함께 분개하며 우리에게 박수를 보내고 있다"고 말했다.

빅터 박 기자

세금무료상담
확실히 줄여드립니다!!

- 사업체 비영리단체 설립 해산 및 장부정리(Quickbook)
- 개인 및 사업체에 맞는 절세방법
- 크레딧카드 빚, 부동산관련 세금문제해결(1099-C)
- 저소득층 세금환급(EITC)
- Payroll & Sales Tax 보고(Paycheck service)
- IRS,SBOE,EDD,FTB세금문제해결(Levy & OIC)
- ITIN(개인 납세번호)신청 및 공증
- 정확한 서비스와 저렴한 수수료

이정운 CPA

Tel (213)387-2004
Email상담환영 : chungleecpa@hotmail.com
3130 Wilshire Blvd. Ste 405, Los Angeles, CA 90010
Tax season 연장근무!!
(평일 9 am – 8 pm,토요일10 am- 5 pm)
(무료주차!! Free Parking!!)

2012년
유아교육과 학생모집

Day Care, 프리스쿨, 어린이집, 유치원, 방과후 학교에 관심이 있으신 분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3개월 코스(월~금 매일수강 및 실습)를 마치면 교사, 원장의 자격이 됩니다.

강의 시작 : 2012년 3월 12일 (월)

한 생명의 귀중함에 대하여 생각해 보셨습니까? 어린 시절은 인간의 전 인격 발달의 절대적 중요한 시기입니다. 본교는 영아, 유아를 바르게 가르치기 위한 교사 및 원장의 올바른 자세와 교육방법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훌륭한 교사가 어린이들의 미래를 밝게 합니다. 지금 선택하십시요." - 학장 이정일

본교의 특징
- ▶ 정부에서 인정하는 자격과 실력을 갖춘 교수님들이 강의함
- ▶ 바른 자녀교육을 통하여 좋은 부모가 되는 방법을 가르침
- ▶ 같은 장소에서 17년의 역사와 전통을 가지고 있음
- ▶ 수료후 취업을 알선하며 창업을 지원함
- ▶ 본교 부설 어린이 학교가 있음(현장실습)
- ▶ 통신으로도 할 수 있음

본교 소개
- ▶ 많은 졸업생들이 현재 프리스쿨에서 일하고 있음
- ▶ 1100명이 넘는 졸업생 배출, 높은 취업률
- ▶ South Bay Worldforce Investment Board 에 가입
- ▶ 캘리포니아 주정부 인가

International Christian Education College
Serving People In Child Care Industry Since 1991 / www.icecusa.com / icecusa@yahoo.com
유아교육대학 Tel. (213)368-0316, Fax (213)368-0318
3807 Wilshire Blvd., #730, LA, CA 90010 (윌셔 + 웨스턴)

니느웨 구원을 위한 하나님의 섭리

요나 4:1-11

장 재 효
서울 성은교회 목사

1. 요나 선지자에 대한 고찰

요나는 아밋대의 아들로 북 이스라엘의 여로보암 2세 통치시대(BC 793-753)에 활동한 구약시대 선지자로서는 최초의 이방선교사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요나에게"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쳐서 외치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하였음이니라(요4:1-2)"고 지시하셨으나 요나는 여호와의 낯을 피하여 욥바로 가서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타고 니느웨의 반대편으로 도망갔으나 여호와께서 폭풍을 크게 일으키사 배가 파선될 때 사공들이 물건을 바다에 던지고 배를 가볍게 했으나 배가 더욱 위태롭게 됨으로 배 안에 있는 사람들을 모아놓고 이 재앙이 누구 때문인지를 가려 내기 위해 제비뽑기를 했는데 요나가 뽑혔습니다.

잠언 16:33에 "사람이 제비는 뽑으나 일을 작정하기는 여호와께 있느니라"했습니다. 뱃사람들이 요나에게 이 재앙이 무슨 연고로 우리에게 임했는지 네가 밝히라 했을 때 9절에서 "나는 히브리 사람이요 바다와 육지를 지으신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라고 말하고 10절에 "자기가 여호와의 낯을 피함인줄을 그들에게 고하였고 그들은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네가 어찌하여 이렇게 행하였느냐"고 원망어린 책망을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나 지금에나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 불순종하게 되면 그 사람의 잘못으로 자신의 불행은 말할 것도 없고 주변 사람들에게까지 엄청난 피해와 고통과 불안을 주게 되기 때문에 결국 불신자들로부터 원책을 당하도록 만드십니다. 뱃사람들이 우리가 너를 어떻게 해야 바다가 잠잠해지겠느냐고 물었을 때 12절에서 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라 그리해야 바다가 잔잔해 질 것이라고 스스로 자신에게 사형언도를 내리고 이 큰 폭풍은 내 죄 값의 결과라고 고백했습니다.

15절 이하에서 결국 요나는 바다에 던져졌고 바다는 곧 잔잔해졌습니다. 17절에 여호와께서 이미 큰 물고기를 예비하사 요나를 삼키게 하셨고 요나는 물고기 뱃 속에서 삼일삼야를 지내야 했습니다. 마태복음 12:40에 "요나가 밤낮 사흘을 큰 물고기 뱃 속에 있었던 것같이 인자도 밤낮 사흘을 땅 속에 있으리라"합니다.

2장의 내용을 보면 요나는 물고기 뱃 속에서 비로서 회개가 터져 나왔고 자기 영혼이 바다 밑바닥을 누비고 산뿌리까지 오르락 내리락 했으나 죽지 않도록 생명을 붙들어 살리시고 계신 하나님을 기대하며 구원은 여호와께로서 말미암는다며 죽을 힘을 다해 회개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물고기로 육지에 토하게 하심으로 요나가 다시 살아난 것입니다. 3장에는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고 도망가던 요나를 큰 풍랑과 고기를 예비하여 회개시키신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 니느웨로 다시 돌아가게 하여 선지자의 선교 사명을 시작하게 하신 것입니다.

2. 니느웨의 죄악상

니느웨는 앗수르의 가장 큰 도시로 창세기 10:11-12에 보면 영걸 니므롯이 건설한 성읍들 중 하나이며 메소포타미아에서 가장 오래된 규모가 가장 큰 도시로서 둘레가 96Km나 되었고 티그리스 강 동편에 있었으며 앗수르 전성기엔 수도이기도 했습니다.

BC 760년경에 요나가 니느웨를 방문했었다는 기록이 앗수르 역사에도 기록되어 있었고 그 당시 앗수르왕은 앗수르단 3세(BC 771-754)로 그 당시 인구는 남여노유 약 60만이었다고 합니다. 요나 1:2절에서 니느웨의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다고 하시면서 요나에게 가서 그것을 쳐서 외치라 하셨습니다.

그 죄악들은 크게 3가지로 윤리적인 죄, 주색잡기로 방탕했고 사회계층간 강포의 죄와 우상숭배의 죄로 심판에 대한 사전 경고도 여러차례 있었습니다. 실례로 앗수르는 나약한 왕들의 쇄국정책으로 국력이 쇠약해졌고 BC 768년에는 6월에 일식으로 백성들이 두려움과 공포에 떨게도 하셨으며 BC 765년에는 전염병이 전국을 휩쓸어 인명과 가축에 많은 죽음을 겪게도 하셨으나 그들은 도무지 회개할 줄 모른채 계속해서 같은 죄악을 일삼았기 때문에 대심판의 경고를 내리시게 된것입니다.

그 당시 니느웨는 3일길을 걸어야 통과할 수 있을만큼 큰 도시인데다 막강한 경제력으로 부강했으며(사20:4참조) 뛰어난 건축물로 호화판 주거문화를 자랑했지만 역사가 밝혀왔듯이 어느 시대를 막론하고 사람이 부강하게 되면 음란방탕하거나 강포로 객기를 일삼게 되거나 부귀영화에 대한 상실 불안감 때문인지 미신우상을 정신없이 섬김으로 멸망을 재촉하는 사례를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 한국의 죄악상도 예외가 아닌 것 같아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이 두렵기 그지 없습니다. 나훔 선지를 통한 예언에도 "화 있을찐저 피 성이여 그 속에서는 궤휼과 강포가 가득하며 늑탈이 떠나지 아니하는도다 휙휙 하는 채찍 소리, 굉굉 하는 병거 바퀴 소리, 뛰는 말, 달리는 병거, 충돌하는 기병, 번쩍이는 칼, 번개 같은 창, 살륙당한 떼, 큰 무더기 주검, 무수한 시체여 사람이 그 시체에 걸려 넘어지니 이는 마술의 주인된 아리따운 기생이 음행을 많이 함을 인함이라 그가 그 음행으로 열국을 미혹하고 그 마술로 여러 족속을 미혹하느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네 대적이 되어서 네 치마를 걷어쳐 네 얼굴에 이르게 하고 네 벌거벗은 것을 열국에 보이며 네 부끄러운 곳을 열방에 보일 것이요 내가 또 가증하고 더러운 것을 네 위에 던져 능욕하여 너로 구경거리가 되게 하리니 그 때에 너를 보는 자가 다 네게서 도망하며 이르기를 니느웨가 황무하였도다 누가 위하여 애곡하며 내가 어디서 너를 위로할 자를 구하리요 하리라 하시도다(나3:1-7)" 하셨으나 로마서 2:5절의 말씀처럼 "다만 네 고집과 회개치 아니한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판단이 나타나는 그 날에 임할 진노를 네게 쌓는도다" 하심과 같았던 것입니다.

3. 요나가 니느웨의 구원을 원치 않았던 이유

오래도록 역사 속에서 여러차례 앗수르가 이스라엘을 침공했으며 사람들을 사로잡아갔고 재산을 약탈해간 앗수르의 대도시 니느웨를 구원해 주시려고 요나가 가서 회개시키라는 하나님의 깊은 뜻을 이해하지 못한 채 내심으로는 니느웨가 하나님의 심판으로 멸망하기를 소원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요나가 고기 뱃속에서 죽을 지경에 처하여 회개하고 여호와의 명령을 수행할 것을 서원했기에 다시 살아 나와서 "요나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일어나서 니느웨로 가니라 니느웨는 극히 큰 성읍임으로 삼일길이라 요나가 그 성에 들어가 하룻길을 행하며 외쳐 가로되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3:3-4)" 했고 5절 이하에선 니느웨 백성이 하나님을 믿고 왕과 백성들과 짐승들까지 금식을 선포하고 전적으로 애통하고 자복하기를 철저히 했기 때문에 죄악을 떠나 악한 길에서 돌이킨 모습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재앙 대신 긍휼의 은혜와 용서로 그 성을 멸하지 않으시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요나의 편견은 아직도 변함이 없어 성을 떠나 언덕에 초막을 짓고 니느웨가 하나님의 심판으로 멸명하게 되는 모습을 보자고 하면서도 주께서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신 줄을 알았다고는 하면서 4:3절에서는 "여호와여 원컨데 내 생명을 취하소서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음이니이다"라고 오도방정을 떨었습니다.

4절에 "여호와께서는 너의 성냄이 어찌 합당하냐"시며 6절에 "여호와께서 박 넝쿨을 준비하사 요나위에 햇빛을 가리워지게" 해 주셨습니다. 요나는 박 넝쿨 그늘을 크게 기뻐했습니다. 7절에 "하나님은 다시 벌레를 시켜 요나가 그토록 기뻐했던 박 넝쿨을 씹어 버리게 하시니 박 넝쿨이 금방 시들어 그늘이 없어지므로 해가 뜰때 하나님이 뜨거운 동풍을 불게 하시므로 요나가 혼곤하다며 스스로 죽기를 청하였다"했습니다. 요나가 구약 선지자들 중 처음으로 해외 선교 사역을 감당하면서도 편견에 고착되어 선교지 주민의 영혼을 사랑할 줄 몰랐고 지나칠 정도로 자기육신의 안일무사주의와 이기적 처세로 일관하는 모습에서 오늘의 한국 교회도 특히 선교사들이 많은 것을 깨달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9절에서 "하나님이 요나에게 이르시되 네가 이 박 넝쿨로 인하여 성냄이 어찌 합당하냐 그가 대답하되 내가 성내어 죽기까지 할찌라도 합당하니이다"라고 했을때 10-11절에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네가 수고도 아니하였고 배양도 아니하였고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망한 이 박 넝쿨을 네가 아꼈거든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변치 못하는 자가 십이만여 명이요 육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아끼는 것이 어찌 합당치 아니하냐"하심으로 긍휼과 은혜며 사랑이 무한하신 하나님은 죄인들을 보시며 걱정하시는 것이 심판으로 멸망시킬 근심보다 회개시켜 구원해 주시려는 목적이심을 알 수 있습니다.

이같은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알아보지도 못하고 선교사명을 저버리고 다시스로 도망가는 요나를 거센 파도로 길을 막으셨고 제비뽑기로 걸리게 하시며 스스로의 죄를 공개자백하게 하셨으며 스스로 사형언도를 내려 바다에 던져 달라 하게 되고 큰 고기를 예비하사 통째로 삼키게 하셔서 고기 뱃속에서 3일을 회개하게 하심으로 선교사명에 복종하게 만드셔서 기어코 니느웨에 가서 심판을 경고하게 하셨습니다.

니느웨가 금식하며 회개하고 불의와 죄악에서 떠난 것을 보시고 심판을 돌이켜 용서와 구원으로 바꾸셨는데 원수시 해 온 니느웨의 구원을 너무나 못마땅해 하는 자기의 종 철부지 요나를 박 넝쿨과 벌레와 뜨거운 동풍들의 체험을 통하여 영혼의 가치와 선교사명의 중요성을 깨닫게 하시는 우리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너그러우심과 무한하신 사랑을 확인시켜 주신 것입니다.

영혼 구원을 얻은 사람이 지옥 형벌을 면케 된 감격적인 기쁨을 이기지 못해 눈물로 감사드리며 주변에 지옥가고 있는 영혼들을 구원해야겠다는 성령의 뜨거운 감동이 있을 때 한 영혼을 천하보다 귀히 여기시는 주님과 같이 영혼을 가장 귀하게 알고 또 뜨겁게 사랑하는 사람이 모든 것을 투자하고 희생하면서 위험과 죽음까지도 불사하고 복음의 제물이 될 수 있는 법입니다. 사도행전 20:24에"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함에는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하였고, 고린도전서 9:14에 "이와 같이 주께서도 복음 전하는 자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명하셨느니라"하셨습니다. 이처럼 요나가 선교사명을 실천했을 때 니느웨도 살렸고 자신도 살게 되었던 것입니다.

성은교회 장재효 목사 TV & RADIO & 신문설교

한 국 선 교 설 교					
CBS TV	목요일 오후 2시 10분		CTS TV	금요일 오전 6시	
기도원연합신문	3면 설교		"말씀에 이끌리며 성령께 쓰임받자"		
해 외 선 교 설 교					
COX TV 워싱턴DC.	화요일 오후 6시	목요일 낮 12시	CTS TV	수요일	서부 오후3시반 / 동부 오후6시반
	토요일 오전 7시	주일 오후 10시30분		토요일	서부 오후6시 / 동부 오후9시
AM1310 기쁜소리방송	화요일 오후 7시30분	금요일 오후 2시30분	미국 기독일보	5면 설교문	온라인 칼럼설교
AM1590 시카고 기독교방송	월요일 오전 11시20분~11시50분			오프라인 칼럼설교	인터넷신문 설교문

성은교회 당회장. 성은동산 원장. 예장증경 총회장. 바른목회연구원 원장.
국제신학대학원대학교 초대 총장. 국제성은복음선교회 총재. 선목회 회장.

You Tube로 지구촌 어디서든 "장재효 목사" 를 검색하면 동영상 설교들을 선택, 시청 가능함

提供 국제성은복음선교회 TEL. 02) 420-3351~3 / HP. 011-222-5591

GOLDEN STATE UNIVERSITY
School of Oriental Medicine
골든 스테이트 한의과 대학

"전인 치유 사역은 기도와 말씀, 의술, 건강교육을 통하여!"

신입생 모집
가주 한의사 면허 취득반
주정부, 한의보드 정식 인가 학교
• 파격적인 장학금 제도 (유자격자 50%까지)
• 최고의 교수진, 최고의 교육환경
(대학 2년 수료 또는 동등한 학력 소지자)

평생 사회 교육원 운영
누구나 한의를 쉽게 배울수 있는 기회!
한의학 과목 수강시 Credit 인정! (유자격자)
(한의학 기초반, 진단학 교실, 침구반, 본초교실, 지압, 가공)

편입생 모집
중. 장기 선교사 훈련반
양·한방 진단, 영양치료, 경락치료, 운동 물리 치료
단기 의료 선교 팀 보조사 훈련
각 교회 의료 선교 사역팀 훈련 의뢰 받습니다.

특혜 1. 일대일 임상지도 2. 취업, 선교지원 3. 자녀관리

9047.E. Florence Ave. #L. Downey, CA 90240
website : http://goldenstateuniv.us
입학문의 : (562) 622-3368 / gsu_inc77@yahoo.com

총장 : 김성일 한의학 박사, 여목사
후원 : Holy 의료 교육 선교회, Holy 한방 병원

대학 병원 진료 쿠폰
무료진료 상담, 치료비 50%, 유능한 임상 전문의
진/료/과/목
부인과 : 생리불순, 갱년기 증세, 비만
남성과 : 전립선, 스트레스성 분노, 비만
노인과 : 치매 예방 보약, 골다공증 예방 보약, 몸 시림 보약
청소년과 : 여드름, 비만, 위염
유소아과 : 발육 성장 촉진, 감기 예방, 비만예방
예약 전화 : 562-965-5112

한기총, 학생인권조례 강력 대처

임원회에서 각종 이단 사안들도 정리해

한기총이 2일 제23-1차 임원회의를 개최했다.

한국기독교총연합회(대표회장 홍재철 목사, 이하 한기총)가 2일 제23회기 첫 임원회를 열고 주요 안건들을 처리했다. 이날 임원회는 총 101명의 임원 중 과반인 63명(출석 42명, 위임 21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한기총은 이날 임원회에서 특히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서울시 학생인권조례와 관련, 강력히 폐지운동에 나설 것을 결의했다. 이를 위해 먼저 당국에 한기총의 입장을 전달한 뒤, 서울 전 지역 교경협의회 회장단을 초청해 공동 대처하기로 했다.

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은퇴목사들을 위한 '연금제도'도 대표회장이 연구위원들을 선임해 한기총 차원에서 대책을 마련하기로 결의했다. 특히 대형교단들의 경우 이미 연금제도가 마련돼 있으나, 중소형 교단들은 그렇지 않아서 소속 목회자들의 고충이 심하다는 점을 감안했다.

질서확립대책위원회 보고 중 삼신론과 마리아 월경잉태론을 주장한 최삼경 목사(남양주 퇴계원면 소재 빛과소금교회)에 대해서는 이단 규정이 확정됐음을 재확인했다. 예장 합동측 정책실행위에서도 최삼경 목사에 대해서는 이단 규정하고, 그를 옹호하는 기독교 각종 문서 〈교회와신앙〉에 대해서도 이단 동조라고 규정한 바 있다.

변승우 목사(예장 부흥총회)에 대해서는 그의 본 소속 교단인 예장 백석측의 입장을 존중해 해당 교단으로 사안을 돌려 보내기로 했고, 류광수 목사(구 전도총회)에 대해서는 현 소속 교단인 예장 개혁측에 돌려보내되 그간의 물의에 대해 사과하고 한국교회 전체가 납득할 만한 결과물을 보여줄 것을 통보하기로 했다.

장재형 목사(예장 합동복음 증경총회장, WEA 북미 이사)의 경우 한기총이 무려 7년 동안 4차례에 걸쳐 공식 조사해 모두 혐의 없음으로 결론 내렸다는 사실을 보고 받고, 앞으로는 이를 재론하지 않기로 결의했다.

이날 임원회에서는 또 정관에 대해 미비점을 연구해 개정 추진할 것을 결의했다. 특히 임원회 불참이 잦은 명예회장과 증경대표회장들로 인한 성수 문제, 총무와 사무총장 임기 및 사무총장직 존폐 문제, 한기총 음해자들에 대한 치리 문제 등을 고려하기로 했다.

이밖에 제23회기 사업계획안과 예산안을 승인했고, 실사위원회 구성을 대표회장에 위임해 가입 원서를 제출한 교단·단체를 실사하기로 했으며, 제23회 수정총회선언문을 채택했고, 임원·상임위원장·특별위원장 등 조직 미비 발표를 받았으며, 질서위 규약을 승인하고, 현재 활동이 유보된 총무협의회를 김운태 총무가 나서서 정상화하기로 하는 등의 결의가 있었다.

한편 이날 회의에 앞서 열린 예배에서 홍재철 목사는 〈빌 2:2~5〉을 본문으로 설교하며 "한국교회가 여러 일로 어지럽지만 이럴수록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같이 품고 건전한 토의를 하면 더욱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발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류재광 기자

9개 교회 개척 후 독립된 성전 마련

뉴라이프선교교회, 박은조 목사 초청 집회

박은조 목사가 뉴라이프선교교회 입당부흥회에서 메시지를 전하고 있다.

내어놓음으로 풍성한 교회, 뉴라이프선교교회(박영배 목사)가 최근 독립된 성전으로 이전했다.

그동안 9개 교회를 개척하면서도 정작 자신들은 독립된 성전을 갖지 못했기에 이번 이전은 더욱 큰 감격과 감사가 넘쳤다.

이 교회는 지난 2월 24일부터 26일까지 한국 분당 샘물교회를 담임했던 박은조 목사를 강사로 초청해 '뉴라이프를 성령으로 새롭게'라는 주제로 입당 부흥집회를 5차례 가졌다.

박 목사는 설교에서 "달리기 경주에서 1등을 한다 해도 출발이 잘못되면 실격된다"고 전하며 "우리 신앙도 이와 같아서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의 주인이심을 늘 고백하는 삶을 살 때 그분을 닮아가게 된다. 지금 새로운 출발점에서 성령으로 거듭나 새롭게 출발하자"고 강조했다.

이 교회는 미국장로회(PCA) 소속이며 3월 3일부터 매주 토요일 어린이 대상 한글학교를 시작했다. 등록비와 수업료가 무료이며 교회 측은 한인들의 많은 관심을 당부했다.

문의) 김진규 전도사 714-392-0037

빅터 박 기자

연합감리교여선교회 남가주연합회 제23회 찬양의 밤

남가주 지역 16개 KUMC 교회의 여성들이 참석한 가운데 찬양의 밤이 성황리에 열렸다.

지난 4일 윌셔연합감리교회(정영희 목사)에서는 연합감리교단 산하 한인 여선교회 남가주연합회(회장 손미애)의 찬양의 밤이 열렸다.

이 행사에는 남가주 지역의 16개 교회에서 참여하며 찬양과 연합에 뜻을 모았다.

언약교회가 '예수 이름으로', 로스펠리즈교회가 '손뼉치며 찬양해', 시온교회가 '모든 일에 때가 있네' 등을 불렀다. 특히 샌디애고교회는 '주님을 찬양하세'를 어린이들과 함께 불러 큰 박수를 받았다. 마지막은 윌셔교회가 '나를 받으옵소서'를 불렀다.

이번 행사에서 여선교회연합회는 창립 30주년을 맞이해 지금까지의 사역을 회고하는 한편, 2세들에게 사역을 계승하도록 하는 비전을 제시하기도 했다.

행사는 손미애 회장의 인사, 최미란 부회장의 목적문 낭독, 최영희 회계의 대표기도, 박나미 부회장과 김영희 서기의 사회로 진행됐다. 끝으로 남가주한인연합감리교회연합회 회장을 맡고 있는 우광성 목사가 축도했다.

한편, 남가주연합회는 오는 24일 봄바자회를 윌셔연합감리교회에서 개최해 수익금을 선교학교에 사용할 계획이다.

빅터 박 기자

"지금까지 주님의 은혜"

나성영락교회 39주년 맞아

창립 39주년을 맞이해 은퇴 및 임직한 교회의 일꾼들이 한 자리에 모였다.

나성영락교회가 창립 39주년을 맞아 오전엔 기념예배, 오후엔 은퇴·임직예배를 4일 드렸다.

기념예배에서 임시당회장 박희민 목사는 '은혜공동체'(행11:21-24)란 제목으로 설교를 했다.

박 목사는 "유대인들은 자신을 선민이라 해서 이방인과 함께 예배를 드린다는 것은 그 당시 상상도 못했다. 하지만 은혜로운 교회는 차별없이 모든 이들에게 세상에서 주지 못하는 은혜를 줄 수 있어야 한다"며 "나의 나된 것은 주의 은혜라는 것이 사도 바울의 고백이다. 지금까지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영락교회가 있을 수 없었다"고 말했다.

토마스 맹 기자

남가주안디옥교회 이전연합감사예배

주 안에서 함께 꿈꾸고 이루어 가는 교회로

남가주안디옥교회 추영욱 담임목사가 설교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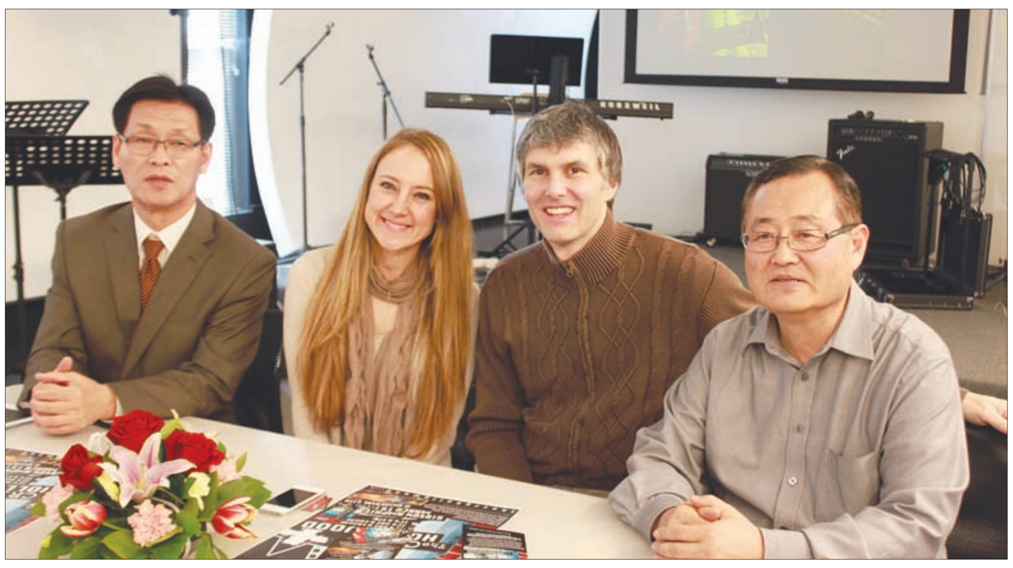
지난 4일 가든그로브로 이전한 남가주안디옥교회(추영욱 목사)가 이전과 함께 참평안교회(김윤덕 목사)와 연합하며 이전 및 연합 감사예배를 드렸다. 설교에 앞서 추 목사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앞으로 참평안교회와 하나되서 예배 드리게 됨을 감사드린다. 서로 위로하고 아끼는 마음을 갖고, 복음전파의 사명만을 보고 가길 바란다"고 소망했다. 그는 '우리가 주 안에서 함께 꿈꾸며 이루어 가야 할 교회'라는 제목으로 설교했다.

미국장로교 한미노회 소속인 이 교회는 2020년까지 20명 선교사 파송, 2천명 성도 출석을 목표로 전진할 계획이다.

빅터 박 기자

로즈볼 울렸던 한인들 이번엔 헐리우드로

"The CRY Hollywood" 3월 15일 10시간 기도회... 한인교회 적극 참여 예상


기자 회견에서 이 행사를 설명하는 전두승 목사, Robert Grasseschi/Faytene 부부, 강순영 목사

전세계에 큰 영향력을 주고 있는 연예계와 미디어계의 심장부인 헐리우드를 위한 통곡기도회가 오는 3월 15일 오후 2시부터 자정까지 유니버셜 스튜디오 깁슨 극장에서 열린다.

"The CRY Hollywood"라 명명된 이번 기도회는 각종 미디어 제작자들과 관련 종사자들이 좋은 영향을 줄 수 있는 복음적인 콘텐츠를 생산하길 소원하며 하루 동안 금식하고 찬양과 기도하는 형식으로 진행된다.

기도회를 이끌 지도자들은 헐리우드 지역과 그 외 각 지역 지도자들로 구성되며, 한인 목회자들도 참석한다.

행사는 2002년부터 캐나다에서 8번의 전국 집회를 이끈 바 있는 캐나다 지도자들로부터 시작된 CRY 기도운동 모임에서 주최하며, 한인교계에서도 적극적으로 참여할 조짐이다.

주최 측은 하나님을 간절히 바라는 기도회가 될 것이라고 전했다. 기도 제목은 △하나님께서 연예사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을 축복하시고 그들의 삶에 강력하게 역사하시도록 △성령께서 감동하시는 영화들이 만들어지도록 △섹스산업에 종사하는 자들이 구원되도록 △우리 세대에 성령의 역사하심이 증가하도록 하는 등의 기도가 진행될 예정이다.

최근 이 기도회를 위한 기자회견이 올림픽장로교회에서 전두승 목사(시티하베스트교회), 강순영 목사(JAMA 부대표), CRY 디렉터 Faytene/Robert Grasseschi 부부가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CRY 측은 "한인교회가 참여한 지난 11.11.11 로즈볼 집회에 대해 많이 들었다"며 "한인교회의 열정으로 인해 뜨거운 분위기로 기도회가 진행되었던 것에 감사를 드린다"고 밝혔다. 또 "이번 The CRY Hollywood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든 교파와 인종을 초월해 모이는 자리"라고 밝히며 "CRY는 정치적인 성향의 기도회가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기도회이다.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가 나라를 이끌어 달라고 기도를 한다"고 밝혔다.

Grasseschi 디렉터는 "현재 미국에 사는 보통 사람이 평균적으로 1년에 교회에서 28시간을 보내는 반면에 하루에 6시간씩 미디어에 빠져 있다. 이는 1년이면 2190시간이다. 또 미국에 사는 보통 사람이 18살이 될 때까지 미디어를 통해 1만6천번의 살인과 2만번의 폭력행위를 본다고 한다. 미디어의 파워는 부인할 수 없을 정도로 강력하다. 미디어를 움직이면 전세계가 움직일 것이다"라며 "기도회를 통해 헐리우드가 변화돼서 전세계에 선한 영향력을 줬으면 좋겠다. 6천명이 모이는 극장에서 한마음으로 기도한다면 하나님이 움직이실 것이다"고 했다.

"The CRY Hollywood" 기도회 등록은 www.thecryhollywood.com에서 6000석으로 제한된 티켓을 끊어야 한다. 3월 1일까지 12불, 그 이후에는 16불에 티켓을 구입할 수 있으며, 등록하는 선착순으로 무대와 가까운 자리를 배정받는다. 기도회는 www.godtv.com에서 전세계로 생방송된다.

한편, 11.11.11 로즈볼 집회 한인 코디네이터였던 전두승 목사는 "로즈볼 대회 이후 한인교회의 열정이 전세계에 소문이 퍼졌다. 이제는 한 사람의 파워보다 민족 위주로 기도하자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며 "오는 9월 11일에 LA 다운타운 스테이플스에서 히스패닉 지도자들이 2만 5천명이 모이는 기도회를 열자는 이야기를 하기도 했다"고 밝히기도 했다.

장소: 유니버셜 스튜디오 깁슨 극장(Gibson Amphitheater, 100 Universal City Plaza, Universal City, CA, 91608)
문의: globaldm2030@yahoo.com

토마스 맹 기자

한인 청년들 "탈북자 강제북송 반대"

중국영사관은 무대응으로 일관

링크 회원들이 탈북자 강제북송에 반대하며 시위하고 있다.

3월 2일 금요일 오전 11시부터 오후 3시까지 LA한인타운에 있는 중국영사관 앞에서는 중국 당국의 탈북자 강제북송에 반대하는 링크(LiNK, Liberty in North Korea) 회원들이 "내 친구를 구해 주세요(Save My Friend)"라는 시위를 벌였다. 이 집회에 참여한 회원들은 한인 2세들 중심에 백인들도 눈에 띄였다.

이나래 양은 "전에는 나 역시 북한 인권의 실상을 알지 못했다"며 "이번 탈북자 북송 문제를 계기로 더욱 많은 이들이 북한 문제에 관심을 갖길 바란다"고 말했다.

캘리포니아 주에 본부를 둔 북한인권단체인 링크(대표 한나 송)는 2004년 미주한인학생회에서 한인 1.5세와 2세 젊은이들이 주축이 돼 설립됐으며, 탈북자 구출과 집회, 강연 활동을 왕성히 하고 있다. 미주 전역에 72개의 지부가 있고, 지난해에만 58명의 탈북자를 구출해 냈다.

한 관계자는 "탈북자를 구출하고 이들의 제3국 정착을 돕기 위해 미주 47개 주와 캐나다 3개 주에서 설명회를 갖고 있다. 현재까지 약 800회의 설명회를 열었으며 북한을 위해 기금을 모금하고 있다"고 전했다.

한편, 중국영사관 측은 이들의 집회에 무대응으로 일관했다.

빅터 박 기자

비전 사.일.팔. 땅 끝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

삼성장로교회 선교와 구제의 두 축으로 복음 전파

삼성장로교회가 선교하고 있는 캄보디아의 어린이들

비전 사.일.팔.의 사.일.팔.은 사도행전 1장 8절을 뜻한다. 삼성장로교회가 선교와 구제의 두 축으로 땅 끝까지 복음과 사랑을 전하기 위해 수립한 비전이다. 담임 신원규 목사는 "교회의 본질은 건물이 아니라 사도행전에 나온 말씀처럼 땅 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증인의 삶을 사는 데에 있다"고 말했다.

이 교회의 이정자 전도사는 "선교 사역의 일환으로 My Kids World라는 비영리 단체를 설립해 몽골, 캄보디아 등지의 어린이 113명에게 한명당 매일 1불씩, 총 30불씩을 보내고 있다. 가난에 굶주린 고아들의 식생활을 개선해 영육간에 강건한 하나님의 사람들로 양육하기 위함이다"라고 말했다. 또 캄보디아에는 두개의 고아원, 몽골에는 한개의 고아원을 설립해 운영하고 있기도 하다.

이러한 선교 사역 외에 구제 사역도 사.일.팔.의 중요한 한 축이다. 성도 가운데 뜨개질을 잘하는 성도들은 손수 뜬 모자, 양말을 불우한 이웃에게 나눠준다. 동전모으기 팀은 동전을 모아 구제 사역 기금을 마련한다. 양로원 봉사팀도 있다.

교회 측은 "앞으로 세계의 어려운 국가에 빈곤한 어린이를 대상으로 5만명을 후원하는 것을 목표로 기도하고 있다. My Kids World와 함께 가난과 굶주림에 있는 어린이들을 주님의 사랑으로 후원하고자 하는 분이 있다면 동참 해 달라"며 간청했다. 문의: 562-690-9800

빅터 박 기자

Open the Eyes of My Heart

은혜한인교회 30주년 기념 폴 발로쉬 초청 선교의 밤

폴 발로쉬 초청 집회가 은혜한인교회 본당을 가득 채운 가운데 시작됐다.

'모든 능력과 모든 권세', '호산나' 등 400여 곡의 찬양곡을 쓴 베테랑 싱어송라이터 폴 발로쉬(Paul Baloche)가 24일 오후 7시 30분 은혜한인교회에서 콘서트를 펼쳤다. 폴 발로쉬는 이날 2500여 명의 청중이 모인 은혜한인교회 본당에서 2시간여 동안 'Open the Eyes of My Heart', 'Hosanna', 'Rock of Ages', 'Today is the Day','Glorious', 'Above All' 등 15여곡을 선사했다. 토마스 맹 기자

“성화 없는 구원교리는 대단히 잘못됐다”

대한예수교장로회 미주합동총회 이단대책 세미나 개최

이단대책 세미나가 27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 30분까지 해돋는교회(정갑식 목사)에서 열렸다. ‘미혹의 영을 주의하라!’라는 주제로 열린 세미나는 대한예수교장로회 미주합동총회(총회장 전요한 목사) 주최, 미주기독교이단대책연구회(회장 한선희 목사) 주관으로 개최됐다.

강사는 조남민 목사(한인성경선교회)와 한선희 목사가 나섰다. 1부 예배 설교에서 전요한 목사는 ‘말세와 적그리스도’(습1:2-18)란 제목으로 말씀을 전했다. 전 목사는 “요즘 기독교가 세상으로부터 공격을 받고 있다. 이는 사단의 공격이 있기 때문”이라며 “종말이 가까워오고 있다. 이런 징조가 도처에서 일어날 때 사단 숭배자들이 일어난다. 우리가 주께서 피로 사신 교회를 세워 나가는 데에 힘써야 할 것이다. 어두워지는 세상에서 더욱 빛을 내는 삶, 주께 칭찬받는 종이 되길 바란다”고 했다. 예배는 사회에 김원락 목사(총회서기), 기도에 나정기 목사(총회 회계), 축도에 신상원 목사(부총회장) 순서로 진행됐다.

이단 예방 사역에 뜻을 둔 교계 지도자들이 세미나에 참석해 정보를 교환했다.

세미나에서는 먼저 한선희 목사가 구원파(기독교복음침례회)에 대해 강연을 했다. 한 목사는 “구원파는 아무리 큰 죄, 살인과 간음을 저지른다 할지라도 죄가 아니라고 한다. 자범죄를 인정하지 않는 것이 문제”라고 말했다. 한 목사는 구원파의 예배관에 대해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형식을 갖춘 예배의식은 필요 없다고 한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성서론에 대해서도 “성경을 자기 마음대로 가감하는 오류를 범한다”며 “십계명을 부정하고 근본적으로 인간은 율법을 지킬 수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 편에서는 율법을 지키나 마나 한 것이라고 한다”고 했다.

이어 한 목사는 박옥수 씨가 왜 이단인가에 대해서도 설명했다. 그는 “구원파는 기성교회 신자들의 구원에 대한 믿음을 인정하지 않는다. 또 죄와 죄의 증세를 구분하여 간음, 살인 등은 죄의 증세이며, 죄가 아니라고 주장한다”며 “구원을 하나님의 은혜에 의존하기보다는 인간의 확신에 의존하며, 구원 후의 범죄를 인정하지 않으므로 율법폐기론을 주장한다”고 말했다.

또 한 목사는 구원파의 성화 과정이 결여되어 있다는 문제점을 지적했다. 한 목사는 “박옥수 씨 구원론에는 성화가 없다. 구원 받으면 끝이라는 것”이라며 “우리는 구원받고 성화의 길을 가는데 있어서 100% 성화는 못해도 노력은 한다. 사도 바울이 예수님의 ‘스티그마’를 갖고 예수의 향기를 드러내는 삶을 산 것과 같이 우리도 어제보다 오늘이 성화되어 가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 그러나 박옥수 씨는 성화가 없다. 대단히 잘못된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그는 “구원을 받았더라도 죄를 지으면 회개하고 (죄를 안 짓도록)노력하는 것이 맞다. 자범죄가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하는데 인정하지 않는 것이 문제”라며 “인간이기 때문에 구원 후에 짓는 죄를 인정해야 한다”고 했다.

이날 세미나 오후 시간에는 조남민 목사가 ‘로마 가톨릭 교회와 우리가 하나될 수 있는가?’란 주제로 강연을 했고, 한선희 목사가 신천지, 안상홍증인회, 신사도운동에 대해 강연을 펼쳤다. 토마스 맹 기자

동성애 교육 반대에 교계 힘 결집

➡ 1면에 이어서

이것이 승인될 경우 SB48이 본격적으로 시행되더라도 이를 거부 혹은 일정부분 삭제하는 것이 가능해진다. 관계자들은 1일 기자회견을 통해 이 두 발의안을 통해 동성애 교육이 원천봉쇄 될 수 있다 주장했다.

이 자리에는 남가주교협 뿐 아니라 미주기독교총연합회, 미주성시화운동본부, OC교협, 샌버나디노카운티한인교협, 사우스베이목사회, 뉴스피릿무브먼트에서도 참여했다.

남가주교협 변영익 회장은 “지난해 SB48을 저지하지 못했지만 하나님께서 절호의 기회를 주셨다”며 “지난번 SB48 저지 때보다 시간적으로 여유가 있고, 더 많은 단체에서 관심을 보이고 있다. 65만명 이상의 서명을 받게 되면 우리 자녀들이 동성애 교육을 받지 않게 된다”고 밝혔다.

동성애교육반대서명운동위원장 박성규 목사는 “1350여개 한인교회에서 교인 한명이 20개 서명을 받는 캠페인을 벌이려고 한다”며 “마켓에 부스를 설치해서 서명을 받으려고 한다. 또한 개신교, 가톨릭, 불교 등과 연합해서 서명운동을 펼치려고 계획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2개의 발의안에 필요한 서명이 모이면 11월에 주민투표가 이뤄진다.

탄원서 작성은 PRE 서명용지는 www.TVNEXT.org(Traditional Value for Next Generation-다음세대가치관 보호)에서 다운로드를 받을 수 있으며, Class Act 용은 Classact2012.com에서 다운로드가 가능하다. 영어 자료는 www.parentalrightsineducation.org에서 구할 수 있다. 기도와 후원 및 자원봉사 문의는 tvnext.org@gmail.com 또는 sarahspring2009@gmail.com로 하면 된다.

관계자에 따르면 서명지 작성 방법은 SB48 반대 서명운동 때와 같으며, 검정팬으로 정자체로 작성해야 한다. 그리고 원본 청원서에 한해 복사를 얼마든지 해서 서명이 가능하다.

문의 : 323-735-3000(교협)
323-404-3147(박세헌 목사)
213-255-1725(양경선 목사)
310-325-4020(주님세운교회)

토마스 맹 기자

성시화운동본부 · 홀리클럽 창립 9주년 및 이전 감사예배

하나님 사랑 속에서 가정과 도시와 나라를 변화시키자

예배를 드린 후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에 임했다.

2003년 설립된 이래 미주 지역을 거룩하게 변화시키는 운동을 주도해 온 미주 성시화운동본부와 홀리클럽이 창립 9주년을 맞이했다. 이 단체들은 지난 해에만 해도 사랑의 쌀 나눔 운동, 11.11.11 로즈볼 연합기도회, GKYM 청년 선교대회 등에 열정적으로 참여했다.

2월 28일 새롭게 이전한 오피스에서 드린 창립 9주년 및 이전 감사예배에는 교계 지도자들이 참석해 축하와 격려를 아끼지 않았다.

예배 설교를 맡은 대표회장 박희민 목사는 베드로전서 2장 9절, 10절 말씀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왕같은 제사장으로 세워서 하고자 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제사장같이 중보기도 해야 할 책임이 있고, 하나님 말씀을 갖고 세상을 섬기고, 변화의 능력을 가정과, 도시, 사회에 드러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예배의 사회는 LA 홀리클럽 회장인 지정구 장로가 맡았고, 대표기도는 미주 홀리클럽 회장인 김경수 장로가 맡았다. 이후 상임본부장 이성우 목사가 창립부터 현재까지의 사역을 보고했다. 남가주 교협회장 변영익 목사는 “이전보다 더 밝고 좋은 곳으로 인도해 주셔서 감사하다. 좋은 곳에서 더 발전하며 큰 일을 하길 바란다”고 전했다. 축도는 한기형 감독이 맡았다. 빅터 박 기자

찬양의 삶을 기뻐하시는 하나님

새생명비전교회, 이기선 교수 초청 찬양 세미나

이기선 교수

새생명비전교회(강준민 목사)가 서울사랑의교회(오정현 목사) 지휘자이며 총신대 교회음악과 교수인 이기선 교수를 초청해 지난 3일 찬양 세미나를 열었다.

이 교수는 성경에 나타난 찬양의 역사, 찬양의 의미, 찬양의 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설명했다. 그는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누구나 그 기쁨으로 하나님을 찬양해야 한다.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하신 말씀처럼 찬양은 우리 삶을 하나님께 거룩하게 드리는 산 제사가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행사를 담당했던 김경훈 목사는 “매년 이런 세미나를 개최해 찬양 사역자들에게 비전을 제시해 주고 새 힘을 얻어 왔다”고 전하고, “올해는 특별히 이 교수님을 초청해 교수님의 찬양에 대한 영성과 비전을 전해 주고 싶었다”고 말했다. 빅터 박 기자

찬양에 관심을 가진 많은 성도들이 이 세미나에 참석했다.

2012미주기독대학박람회

미주장로회신학대학교
해외한인장로회 총회 직영신학원
(한국 장로회 통합측 목사고시, 안수 가능)
I-20 발행 및 각종 장학제도
15605 Carmenita Rd., Santa Fe Springs, CA 90670
Tel: 562-926-1023, 4691 / Fax: 562-926-1025 / www.ptsa.edu

코헨대학교&신학대학원
with the word, to the world!
17002 S. Prairie Ave. Torrance, CA 90504
Tel: 310-793-2285 / Fax: 310-793-2297 / www.cohenuniversity.ac

국제개혁대학교 신학대학원
I-20 발행, 각종 장학금 혜택
KAPC 교단 직영 신학교
125 S.Vermont Ave., Los Angeles, CA 90004
Tel: 213-381-0081 / Fax: 213-381-0010 / www.iruniv.org

캘리포니아센트럴대학교
This is the hand stretched out over all nations. (Isaiah 14:26)
520 S. La Fayette Park Pl. Suite #103 Los Angeles, CA 90057
Tel: 213-381-7007 / Fax:818-435-2441 / www.myccu.us

미 서부 침례신학교
I-20 발급, 장학금 및 연방정부 학자금 융자 가능
1월과 6월 2주간 집중 강의로 3년 내에 D.Min. 취득 가능
GTU, UC Berkeley로 대학원 과정 수강 및 Ph.D. 수학 가능
M.A. in Community Leadership는 평신도 지도자 프로그램
760 South Westmoreland Ave., Los Angeles, CA 90005
Tel: 213-200-2592 / baptistbob@verison.net

국제장로회연합신학대학
칼빈주의 신학에 근거하고 개혁주의
신앙으로 신학을 정립하고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을 통하여 그리스도 일꾼들을 양성
1749 W. Orange Ave. Anaheim, CA 92804
Tel: 714-879-7952, 714-393-7952 / hjung3155@gmail.com

국제비젼대학교
정시/수시: (Offline, Online 강의)
학위: 학사/석사/박사 (D. Min., D.Miss., Ph. D.)
I-20 발행, 각종 장학금 지급
760 S.Westmoreland Ave. Los Angeles, CA 90005
Tel: 213-293-5745 / 213-610-4989 / www.vision.edu

캘리포니아 두란노대학 신학대학원
목회학.신학.철학 박사 California Tyrannus University
BPPE Ed.code 94874, Sc code 22426
CEO 학감 김호 박사
1008 S. Kingsley Dr. Los Angeles, CA 90006
Tel: 213-507-1933

유인신학대학 신학대학원
21세기 영성 리더의 산실!
(BA, M.Div, Ph.D 유학생 비자 발급, 각종 장학금 제도)
3130 Wilshire Blvd #402 Los Angeles,CA 90010
Tel: 213-388-9800 / Fax: 213-384-7898

FULLER THEOLOGICAL SEMINARY
풀러신학교 선교대학원 한국학부
135 N.Oakland Ave. Pasadena, CA 91182
Tel: 626-584-5574 / http://korean.fuller.edu

미주대한신학대학
개혁주의에 기초한 성경해석과 성경에 대한 종합적 사고능력 배양.
교회 역사와 신학에 대한 구속사적 안목의 정립.
말씀을 실천하는 신실한 주의 종 양성.
세계 복음화를 위한 영적인 리더쉽의 준비.
1325 12th Ave L.A, CA. 90019
Tel: 323-731-9819

칼빈성서신학대학원
CALVIN BIBLE COLLEGE&SEMINARY
4055 Wilshire Blvd #419 Los Angeles, CA 90010
Tel: 213-389-8987

미주개혁신학대학교
SEVIS I-20 FORM 발행
신학과/ 선교학과/ 기독교교육학과/ 목회상담학과
사회복지학과/유아교육학과/ 종교음악학과/ 문예창작학과
2706 Wilshire Blvd. 1st Floor, Los Angeles, CA 90057
Tel: 213-736-6500 / Fax: 213-736-6504 / reformeduniv.org

아메리칸 신학대학 및 대학원
ARPC 미국 총회 목사 안수
I-20 발행
1829 S. Western Ave. Los Angeles, CA 90006
Tel: 323-732-7356 / Fax: 818-773-8868 / www.atsusa.org

미션신학대학교
하나님 앞에 선하고, 진실하게 일할 수 있는
사명자를 양성합니다. (전액 장학금 지급)
15000 Studebaker Rd. Norwalk, CA 90650
Tel. 562-869-7497 / www.mcuniversity.org

바울성경대학
말씀을 개혁주의 신학안에서 바르고 깊이있게,
성경 66권 전체를 공부하시기 원하시는 분은
누구든지, 언제나, 오실 수 있습니다.
7651 5th St. Buena Park, CA 90621
Tel. 562-394-3342 / paulbiblecollege@gmail.com

위클리프대학교
Wyclif University & Theological Seminary는
개혁적인 신앙과 바른 성서해석을 가르쳐
어두움을 밝히는 지도자, '개혁의 새벽별'
존 위클리프 같은 개척자를 길러낼 것입니다
14631 Leffingwell Rd. Whitter, CA 90604
Tel: 562-777-7078 / www.wyclifuniversity.net

미주성결대학교
한국성결교회 100년,
미주성결교회 30년,
미래를 책임지는 미주성결대학교!
1818 S. Western Ave., #409 Los Angeles, CA 90006
Tel: 323-643-0301 / Fax: 323-643-0302 / www.aeui.org

Solution for Tomorrow

LASERVISION WORLD
www.laservisionworld.com

PROJECTOR SCREEN
LIGHT
AUDIO
SALES RENTAL

Customized Solution

*컨설팅부터 시스템 설계, 시스템 시공, 감리, 교육 및 정기점검까지
One Stop Solution을 제공하는
– Total System Integration
*최신 HD 레코딩 장비를 갖춘 넓고 조용한 Recording Studio를 기반으로 한
– Music Production
*최신 HD 영상 장비를 갖춘
– Digital Film/Video Production
*최신 장비로 무장한 라이브 음향 영상 조명 시스템을 기반으로 한
– Live Production 까지
Laservision World에 오시면 여러분의 필요에 맞는
전문 음향, 영상, 조명의 Total Digital Custom Solution을 제공 해드립니다.

Laservision World만이 드리는 다음과 같은 장점
1. 풍부한 방송 System 시공 및 컨설팅 경험이 있습니다.
2. 20년 동안 미주 한인 사회와 함께 자라온 안정된 회사입니다.
3. 음향 / 영상 / 조명에 관한 토탈 디자인 서비스를 통해 경비와 시간을 최소화시켜드립니다.
4. Supervising System을 적용하여 체계적인 System Integration을 진행합니다.
5. 유지관리 비용을 절약하여 드립니다.
6. 에너지 절약 디자인을 최우선시 합니다.
7. 시공 후 Training과 Service 를 통해 고객과 지속적인 관계를 유지합니다.
8. 일에 필요한 License와 책임에 관한 Insurance & Liability을 갖고 있습니다.

Laservision World / Laservision Structure & Engineering Inc. / wwori.com / AVLgear.com
1961 S. Vermont Ave. Los Angeles, CA 90007 Tel: 323-730-5050 Fax: 323-383-0257 contact@laservisionworld.com

이철 담임목사
1부예배 오전 8:00 / 1부예배(EM) 오전 9:45
2부예배 오전 11:30 / 2부예배(EM) 오후 1:30
수요찬양예배 오후 7:00 / 새벽기도회 오전 5:30 (화-금)
가나안장로교회
하나님의 꿈을 이루어 가는 교회
17200 Clark Ave., Bellflower, CA 90706
T.(562) 866-0980/5027 / canaanchurch.org

한천영 담임목사
1부예배 오전 9:00 / 어린이부 오전 11:00
2부예배 오전 11:00 / 새벽기도회 오전 5:30 (화-금)
Youth예배 오전 11:00 / 토요연합새벽 오전 6:20
갈릴리선교교회
믿음으로 그물을 던져라
2212 S. Western Ave., Los Angeles, CA 90018
T. (323) 735-6412 / gmcchurhc.com

김영길 담임목사
1부예배 오전 7:45 / 금요찬양 오후 7:30
2부예배 오전 9:45 / 장애인예배 오전 10:00
3부예배 오전 11:45 / 영어장년부 오전 10:00
4부예배 오후 1:45 / 새벽기도회 매일 5:30
감사한인교회
사랑받고 사랑하는 교회,전도와 선교에 정성을 다하는 교회
6959 Knott Ave., Buena Park, CA 90620
T. (714) 228-9540 / F. (714) 521-4636

이희철 담임목사
1부예배 오전 8:00 / 중고등부예배 오전 11:00
2부예배 오전 11:00 / 수요찬양성령집회 오후 8:00
3부영어예배 오후 1:00 / 금요성경공부 오후 8:00
어린이예배 오전 11:00
갓스윌연합교회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는 교회
904 E D St., Ontario, CA 91764
T. (909) 268-4279 / gwachurch.org

류준영 담임목사
주일 예배 오전 11:00 / 수요예배 오후 7:00
주일 성경공부/새교우반 오후 1:00 / 새벽예배 오전 6:00 (화-금) 오전 7:00 (토)
글렌데일한인장로교회
예수님을 붙잡고, 자라는, 건강한 교회!
4002 Verdugo Rd., Los Angeles, CA 90065
T. (323) 254-4012 / gkpchurch.com

윤선식 담임목사
1부예배 오전 8:00 / 1부예배(EM) 오전 11:00
2부예배 오전 11:00 / 2부예배(EM) 오후 1:15
3부열린예배 오후 2:00 / 중고등부예배(EM) 오전 11:00
수요예배 오후 7:30 / 금요 중보기도회 오후9~11시
나성금란연합감리교회
꿈이 있고 기쁨이 있고 행복이 넘치는 교회
3153 W. Marine Ave., Gardena, CA 90249
T.(310) 973-5106 / F. (310) 973-7429

김재율 담임목사
주일예배 오전11:00 / 금요제자기도회 오후7:30
주일학교 오전11:00 / 저녁기도회 오후7:00 (월-목)
중 · 고등부 오전11:00 / 새벽예배 오전6:00 (월-토)
청년 · 대학부 주일예배후
나성소망교회
제자사역,건강한중형교회,행복한가정
4063 Ingraham St., Los Angeles, CA 90005
T. (213) 550-7377 / lahopechurch.com

진유철 담임목사
1부예배 오전 8:00 / EM예배 오전 11:30
2부예배 오전 9:30 / 새벽예배 오전 5:30 (월-토)
3부예배 오전 11:30 / 수/금요예배 오후 7:30
나성순복음교회
말씀이 삶으로 나타나는 예배공동체
1750 N. Edgemont St., Los Angeles, CA 90027
T. (323) 913-4499 / F. (323) 913-4494

박헌성 담임목사
1부예배 오전 8:00 / 4부예배 오후 12:30
2부예배 오전 9:30 / EM예배 오전 10:00
3부예배 오전 11:00 / 찬양예배 오후 3:30
나성열린문교회
생명과 부흥이 풍성한 교회
1925 Wilshire Blvd., Los Angeles, CA 90057
T. (213) 413-1600 / laopendoor.org

정우성 담임목사
1부예배 오전 8:00 / 금요저녁예배 오후7:30
2부예배 오전11:00 / 새벽기도회 1부 오전 5:30
성경공부 오후7:30 (화) 오전10:30 (수) / 2부 오전 6:30 (월-금) 오전 6:30 (토)
남가주광염교회
말씀과 기도로 비상하는 은혜공동체
4009 Wilshire Blvd. #100-B, Los Angeles, CA 90010
T.(213)598-0191

손병렬 담임목사
1부예배 오전 8:00 / 3부예배 오전 11:30
2부예배 오전 10:00 / 4부(청년)예배 오후 1:30
남가주동신교회
하나님이 마음껏 역사하시는 교회
2121 E. Wilshire Ave., Fullerton, CA 92831
T. (714) 680-9556 / F. (714) 680-6418

김요섭 담임목사
1부예배 오전 8:00 / 주일학교 오후 1:00
2부예배 오후 1:00 / 새벽예배 오전 6:00 (화-토)
성경공부 주일오전 11:00
남가주리디머교회
세상을 축복하는 교회
1938 S. Western Ave., Los Angeles, CA 90018
T. (213) 215-8523 / scrdm.org

박용덕 담임목사
1부 예배 오전 8:00 / 매일새벽예배 오전5:30
2부 예배 오전 11:30 / Youth 예배 오전10:30
수요예배 오후 8:00 / EM예배 오후 2:30
남가주빛내리교회
God First 거룩한 MVP 공동체
1201 S. Beach Blvd. #110 La Habra, CA90631
T. (714) 401-9874 / starkoreanchurch.org

박헤성 담임목사
1부예배 오전 8:00 / 금요저녁예배: 오후8:00
2부예배 오전11:00 / 새벽기도회 오전 5:30 (화-금)
EM예배 오전 10:00 / 오전 6:30 (토)
유치,유년부,중고등부 오전 11:30
남가주휄로쉽교회
온전한 십자가의 능력으로 함께 나아가는 교회
375 N. Towne Ave., Pomona,CA 91767
T. (909) 397-5737 / nfcus.com

김승원 담임목사
주일예배 오후 2:00
수요예배 오후7:30
금요집회 오후 7:30
뉴월드임마누엘교회
1234 W. 7th St., Los Angeles, CA 90017
T. (909) 993-4842, (909) 993-2157

최성은 담임목사
1부예배 오전8:00 / 한어청년부예배 오후1:00
2부예배 오전10:00 / 새벽기도회 오전5:30(화-금)
EM/Youth예배 오후12:00 / 오전6:00(토)
AWANA 오후12:30 / 금요찬양예배 오후8:00 (매월 마지막주)
늘푸른선교교회
기도와 말씀으로 회복하여 일어나라
1250 North Red Gum St., Anaheim, CA92806
T.(714)632-9191,9192 / missionway.com

권영국 담임목사
1부예배 오전 8:30 / 주일청년예배 오후 1:00
2부예배(EM) 오전 9:45 / 중/고예배 오전 11:00
3부예배 오전 11:00 / 유아/유치부예배 오전 11:00
대흥장로교회
찬송이신 주여 나를 고치소서
15411 S. Figueroa St., Gardena, CA 90248
T. (310) 719-2244 / dkpc.org

서보천 담임목사
1부예배 오전 9:00 / 수요예배 오후 8:00
2부예배 오전 11:00 / 금요성령기도회 오후 8:00
중/고등부예배 오후1:30 / 주일학교 오전 11:00
새벽기도 오전 5:15 (화-금) / 청년토요예배 오후 6:00
둘로스교회
예수님의제자되어주님과사람을 뜨겁게사랑하며섬기는공동체
1925 Marine Ave., Gardena, CA 90249
T. (310)951-3153 / douloschurch.com

이성현 담임목사
1부예배 오전 8:00 / EM예배 오전 9:30
2부예배 오전 11:00 / 오전 11:00
수요찬양예배 오후 7:30 / 새벽기도 오전 5:30
드림교회
하나님의 꿈을 이뤄 드리는 교회
1305 E. Colorado Blvd., Pasadena, CA 91106
T. (626) 793-0880 / F. (626) 793-6412

강진웅 담임목사
1부예배 오전 8:00 / 주일학교 오전 10:00
2부예배 오전 11:30 / 주일성경공부 오후 1:30
라브레아커뮤니티교회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라 (사 40:31)
1069 S. La Brea Ave., Los Angeles, CA90019
T. (323) 930-1088 / F. (323) 930-0788

이서 담임목사
1부예배 오전 8:45 / 금요 Alpha 오후 7:30
2부예배 오전 11:00 / 새벽기도 오전 5:30(월-금)
중고등부 예배 오전 11:00 / 오전 6:00(토)
EM예배 오전 9:30
미주비전교회
역동적인 예배가 살아있는 비전공동체
1655 West Broadway St., Anaheim, CA92802
T. (714)999-9900 / visioncc.org

손인식 담임목사
1부예배 오전 7:30 / 4부예배 오후 1:00
2부예배 오전 9:30 / 새벽기도회 오전 5:30 (월-금)
3부예배 오전 11:30
베델한인교회
우리가크리스천이다. 내가 크리스천이다. 하나님은응답하신다.
18700 Harvard Ave., Irvine, CA 92612
T. (949) 854-4010 / F. (949) 854-4018

최상훈 담임목사
1부예배 오전 8:00 / 수요중보기도회 오후 7:00
2부예배 오후 12:00 / 수요찬양예배 오후 7:30
아동부예배 오전 11:50 / 새벽기도회 오전 5:30 (화-토)
학생회예배 오후 12:00
벤추라감리교회
성령님이 역사하여 예수님을 바라보게 하는 교회
4300 Telegraph Rd., Ventura, 93003
T. (805) 658-2171 / venturakorea.com

김성일 담임목사
주일예배 오전 11시 / 새벽기도회 오전 5:30 (화-금)
주일학교 오전 11시 / 토요연합새벽기도회 오전 6:00
성경공부 오후 1:30 / 한국어 학교 오전 9:30 (토)
빅토빌예수마음교회
제자훈련사역과 성령사역이 조화를 이루는 성도공동체
15617 Burwood Rd., Victorville, CA 92394
T. (760) 220-3263, (760) 542-9366

남가주 지역 복음화에 앞장서는
교회 및 선교회

신원규 담임목사
1부예배 오전 7:30 / 수요예배 오후 7:30
2부예배 오전 11:00 / 새벽예배(화-금) 오전 5:30
주일학교 오전 11:00 / (토) 오전 6:00
삼성장로교회
주님 주신 축복권을 누리는 성도의 삶 선교와 구제의 삶으로 실천
501 S. Idaho St., La Habra, CA 90631
T. (562) 690-9800 / F. (562) 690-8044

강신권 담임목사
1부예배 오전 8:00
2부예배 오전 11:00
새벽기도 오전 5:30 (화-토)
세계성경장로교회
내가 살구나무의 가지를 보나이다
17002 Prairie Ave., Torrance, CA 90504
T. (310) 793-2297 / F. (310) 793-2298

김한요 담임목사
1부예배 오전 7:30 / 5부예배 오후 2:00
2부예배 오전 9:00 / EM예배 오후 12:15
3부예배 오전 10:30 / 수요예배 오후 7:00
4부예배 오후 12:15 / 새벽예배 오전 5:45 (월-금) / 6:00 (토)
세리토스장로교회
더 좋은 교회 더 좋은 세상
11841 E. 178th St., Artesia, CA90701
T. (562) 860-5451 / ilovecpc.org

김수철 담임목사
찬양나눔예배 매일 오전 7:00 (다운타운 4가 Crocker St.)
1부거리예배 오전 7:00
2부센터예배 오전 9:30
소중한사람들
당신은 하나님께 소중한 사람입니다
1856 W. 11th Place, Los Angeles, CA 90006
T. (213) 385-4515 / F. (213) 385-5474

박상규 담임목사
1부예배 오전 8:00 / 새벽기도 오전 5:30 (화-금)
2부예배 오전 11:00 / 오전 6:00 (토)
시온성중앙교회
은혜,사랑,선교로 복음의 빛을 비추자
5271 Lincoln Ave., Cypress, CA 90630
T. (714)995-2868/ F. (714)995-0169

조인수 담임목사
1부예배 오전 09:00 / 주일학교 오전 11:00
2부예배 오전 11:00 / 새벽예배 오전 5:30 (월-금)
EM예배 오전 10:00
써니사이드교회
하나님을 기쁘게 주님의 소원을 이루며 예수 안에서 행복한 공동체
1183 S. Hoover St., Los Angeles, CA 90006
T. (213) 389-0691 / F. (213) 389-0694

고승희 담임목사
1부예배 오전 10:00 / 새벽기도회 오전 5:30
2부예배 오전 11:45
3부예배(EM) 오후 2:00
아름다운교회
아름다운 세상을 만들어가는 교회
1717 S. Otterbein Ave., Rowland Heights, CA 91748
T. (626) 810-3455 / F. (626) 964-5559

한종수 담임목사
1부예배 오전 7:30 / 새벽예배 오전 5:30(월-금)
2부예배 오전 9:30 / 오전 6:00 (토)
3부예배 오전 11:30 / 열린예배 오후 7:30 (수)
4부예배 오후 1:30 / 성령집회 오후 7:30 (매월 둘째 금)
얼바인침례교회
5101 Walnut Ave., Irvine, CA 92604
T. (949) 857-9425 / F. (949) 857-9472

우대권 담임목사
주일예배 오후 1:30 / 목요예배 오후 7:30
주일학교 오후 1:30
영광빛복음교회
1200 W. Alvarez Ave., #A Orange, CA 92868
T.(213) 291-5901 / (714) 833-2568

김혜성 담임목사
1부예배 오전 8:00
2부예배 오전 10:00
3부예배 오전 11:30
영생장로교회
1829 S. Western Ave., Los Angeles, CA 90006
T. (323) 732-7356 / C. (818) 993-3574

남성수 담임목사
1부예배 오전 8:00 / 금요찬양기도회 오후 7:30
2부예배 오전 9:30 / 청년부예배 오후 2:00
3부찬양 오전 11:15 / 새벽기도회 오전 5:30 (월-토)
수요예배 오후 7:30
오렌지카운티한인교회
영혼을 구원하며 제자삼는 교회
14381 Magnolia St., Westminster, CA92683
T. (714) 893-1652 / kcrcoc.com

정상호 담임목사
주일예배 오전 11:00 / 금요예배 오후 7:30
수요예배 오후 7:30 / 새벽기도회 오전 5:30
요셉선교교회
2728 James M wood Blvd, LA, CA90006
T. (213) 245-4090

한기홍 담임목사
1부예배 오전 8:00 / 3부예배 오후 12:00
2부예배 오전 10:00 / 4부예배 오후 2:30
은혜한인교회
행복한 교회 상급받는교회 세계선교를 마무리짓는 교회
1645 W. Valencia Dr., Fullerton, CA 92833
T. (714) 446-6200 / F. (714) 446-6207

박신철 담임목사
1부예배 오전 7:30 / 청년예배 오후 1:45
2부예배 오전 9:15 / 새벽기도 오전 5:30 (월-금)
3부예배 오전 11:45 / 오전 6:00 (토)
EM예배 오전 11:45
인랜드교회
성령이 하나되게 하신 것을 힘써지키는 교회
1101 Glen Ave., Pomona, CA 91768
T. (909) 622-2324, F. (909) 622-1480

류종길 담임목사
1부예배 오전 9:00 / 금요찬양예배 오후 7:30
2부예배 오전 11:00 / 새벽기도 오전 5:30 (월-금) 오전 7:30 (토)
임마누엘선교교회
성령을 따라 (갈5:16)
1818 S. Western Ave., #200, LA, CA 90006
T. (323) 766-9922

박성규 담임목사
1부예배 오전 9:00 / 3부예배 오전 11:30
2부예배 오전 10:00 / 금요찬양예배 오후 7:20
주님세운교회
Vision 7300으로 지역사회와 세계복음화에 힘쓰는 교회
2911 Lomita Blvd, Torrance, CA 90505
T. (310) 325-4020 / F. (310) 325-4025

신승훈 담임목사
1부예배 오전 8:00 / 3부예배 오후 12:40
2부예배 오전 10:20 / 수요/금요예배 오후 7:30
주님의영광교회
1801 S. Grand Ave., Los Angeles, CA 90015
T. (213) 749-4500 / F. (213) 749-6700

이명수 담임목사
1부예배 오전 9:00 / 금요기도회 오후 7:30
2부예배 오전 11:00 / 새벽기도 오전 5:30 (화-금)
중고등부 오전 11:00 / 오전 6:30 (토)
청운교회
선교에 흐름,소,친,초 정신의 흐름,바른교회관의 흐름
4465 Melrose Ave., Los Angeles, CA 90029
T. (323) 667-9920

민종기 담임목사
1부예배 오전 8:00 / 3부예배 오전 11:30
2부예배 오전 9:30 / 수요찬양예배 오후 7:30
충현선교교회
서로 사랑하라
5005 Edenhurst Ave., Los Angeles, CA 90039
T. (818) 549-9191 / choonghyun.org

이종용 담임목사
1부예배 오전 9:00 / 수요찬양예배 오후 7:30
2부예배 오전 11:00 / 새벽기도 오전 5:30 (화-토)
코너스톤교회
이땅의 참교회, 말씀대로의 교회
24428 S. Vermont Ave., Harbor City, CA 90710
T. (310) 530-4040 / F. (310) 530-8400

성현경 담임목사
EM예배 오전 10:00 / 새벽기도 오전 5:30 (월-금) 오전 6:00 (토)
스페인예배 오전 10:00 /
한국어 오전 10시 (필로우쉽홀) 오후12:30 (본당) / 수요예배 오후 7:45
금요찬양예배 오후 8:00
파사데나장로교회
새 사람, 새 교회, 새 세상을 열어가는 신앙공동체
585 E. Colorado Blvd., Pasadena, CA 91101
T. (626) 795-6252 / F. (626) 584-6544

김철민 장로
결혼교실, 사모교실, 부부교실, 아버지교실
www.GodFamily.com
www.CMFM.org
CMF선교회
가정을 세우는 CMF MINISTRIES
3463 1/2 Pumice St., Norwalk, CA 90650
T. (562) 483-0191 / (714) 493-0191

김기섭 담임목사
1부예배 오전 8:00 / EM예배 오후 2:00
2부예배 오전 9:50 / 새벽기도회 오전 5:25(월-금)
3부예배 오후 12:00 / 토요새벽연합예배 오전 6:20
4부예배 오후 2:22
LA사랑의교회
믿음의 지경을 넓히라
1111 W Sunset Blvd. Los Angeles CA 90012
T. (213) 386-2233 / F. (213) 386-2243

박세록 대표
'강을 건너 세계로', '사랑으로 세상을 치료하고 치유하는 섬김의 사람들이 되자
www.samcare.org
SAM CARE INTERNATIONAL
1309W. Valencia Dr., Unit #K, Fullerton, CA92833
T. (213) 447-8169 / F. (213) 381-1506

이슬람 국가들에 퍼지는 기독교 혐오증

박해와 학살 갈수록 기승 부려 희생자 속출

전세계 이슬람 국가들에 '크라이스토포비아(Christophobia)', 즉 기독교 혐오증이 부상하면서 희생자가 속출하고 있다고 뉴스위크가 보도했다.

'기독교 수난시대(The Rise of Chrsitophobia)'라는 제목의 이 기사에서는 "흔히 무슬림이라면 차별과 학대의 피해자(victims of abuse), '아랍의 봄' 운동으로 독재정권과 싸우는 투사(combatants)가 떠오르지만, 사실상 이들의 땅에서는 수천 명이 목숨을 잃는데도 세계의 관심을 끌지 못하는 전투가 진행 중이며 이는 기독교인들이 신앙을 이유로 살해되는 것이라고 폭로했다. 이러한 이슬람 국가의 종교박해와 집단학살은 갈수록 기승을 부리고 있고, 전세계에서 이에 대한 경보가 울려야 한다고 뉴스위크는 덧붙였다.

무슬림이 다수인 국가에서, 서아프리카와 중동부터 남아시아, 심지어는 오세아니아까지 소수 집단인 기독교인에 대한 폭력적인 탄압은 예삿일이 됐다. 정부 기관이 교회에 불을 지르고, 기독교인을 감금하는 일들이 자행되고 있다. 한 국가에서는 반군 단체와 자경단이 독자적으로 기독교인을 살해하거나 살던 곳에서 쫓아내고 있다.

뉴스위크는 지역 언론들이 이 문제에 침묵을 지키고 있다고도 했다. 그 이유는 여러가지로 추정되는데, 우선은 추가 폭력도발 우려이고, 다음은 로비단체의 압력 행사일 가능성이 크다. 대표적인 로비집단으로는 '이슬람의 유엔'으로 불리는 57개 회원국의 이슬람협력기구(OIC)와 미국 내 이슬람 이익단체인 미국-이슬람관계위원회(CAIR) 등이 있다.

이들을 비롯한 여러 유사단체들의 10년간 로비 결과 이슬람에 대한 문제제기는 조직적이고 사악한 발광쯤으로 인식되며 도덕적 반감을 불러 일으키는 '이슬람 혐오증(Islamophobia)'의 발현으로 언론에서 다뤄지고 있다고 신문은 지적했다. 그러나 이들이 표현하는 '이슬람 혐오증'은 무슬림 국가들에서 자행되는 '기독교 혐오증'과 비교할 수 없는 수준이다.

이슬람 국가에서 기독교인들은 신성모독법(blasphemy laws)부터 잔혹한 살인과 폭탄테러, 상해와 성지 방화 등 숱한 공포 속에서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다. 예를 들어 아프리카 나이지리아 기독교인들은 주로 북부지역에 거주하며 전 인구의 40%를 차지하지만, 심한 박해를 당하고 있다. 이러한 박해는 '서방식 교육은 신성모독'이라는 뜻의 '보코 하람(Boko Haram)' 같은 이슬람 과격파(Islamist radicals)들이 부추기고 있는데, 이들은 "샤리아(이슬람 율법) 확립을 위해 나이지리아 기독교인을 말살하겠다"고 선포했다.

이들은 지난달에만 54명을 잔인하게 살해했고, 지난해에는 최소 510명을 죽였다. 보코 하람에 의해 나이지리아 북부 10개주 교회 350곳 이상이 파괴됐다. 총과 휘발유 폭탄, 그리고 마셰티(날이 넓은 칼)를 사용하는 이들은 무고한 시민들을 공격하면서 "알라후 아크바르(신은 위대하다)"라고 외친다.

수단의 '기독교 포비아'는 나이지리아와 다르다. 북수단 수니파 무슬림 독재정권은 남수단 기독교인들을 수십년간 박해했다. 내전으로 알려진 이 지역분쟁의 실질적 내용은 수단 정부의 소수종교 박해였고, 이는 지난 2003년 다르푸르 대학살로 절정을 이뤘다. 결국 지난해 7월 남수단은 준독립국 지위를 얻었지만, 공중폭격과 표적살해, 어린이 납치 등 잔혹행위가 계속되고 있다. 기독교인 5-7만여명이 쫓겨났고, 집과 건물들은 약탈당했다.

중동의 '아랍의 봄' 바람으로 독재정권을 몰아낸 이집트에서는 '정부 외부단체(extragovernmental groups)'와 '국가 대리단체(agents of the state)'가 기독교인들에게 폭력을 행사하고 있다. 이집트 인구 중 11%인 콥트교도들은 독재 타도 후 오히려 교회 방화, 성폭행, 상해, 살인 등의 위험에 처했다. 이에 대한 항의시위를 열자 보안군이 발포, 최소 24명이 사망하고 300명 이상이 부상당했다. 이집트 콥트교도들은 총선 후 무슬림형제단 계열의 이슬람주의자들이 권력을 장악할까 전전긍긍하고 있다.

이집트 외에도 이라크에서는 기독교인 수천명이 대학살과 인종청소를 피해 탈출해야 했고, 이란에서는 지정된 구역이 아닌 곳에서 예배를 드리려다 체포당했다. 사우디아라비아에서는 기독교인 외국근로자들이 기도조차 할 수 없다. 또 파키스탄 내 기독교인 280만여명은 끊임없는 이슬람주의 테러리스트들의 위협 속에서 신앙을 지키고 있다. 살만 타시르 펀잡주 주지사의 암살은 잘 알려진 이야기다. 파키스탄은 '신성모독법' 위반을 이유로 기독교인들을 박해하고 있다.

동남아에 위치한 인도네시아에도 "기독교 혐오증의 열병에는 면역력이 없다." 인도네시아 인구의 7%를 차지하는 소수집단인 기독교인을 향한 폭력사건은 지난해 1년 사이에 40% 늘어났다.

뉴스위크의 주장은 이러한 사건들이 제대로 보도되지 않는다(underreported)는 것이다. 신문은 "이같은 폭력이 지도부에서 기획됐거나 국제 이슬람 기관에 의해 조직되지 않은 점에서 기독교인들을 대상으로 세계적으로 벌어지고 있는 전쟁은 전통적인 전쟁과는 다르다"며 "무슬림들이 문화와 지역, 민족을 초월해 반기독교적 적대감을 자발적으로 표출하는 행위이기 때문"이라고 전했다.

미국 허드슨연구소 종교자유센터 나나 셰이 소장은 "이슬람 국가에 사는 기독교인들은 현재 사회의 보호막을 잃은 상태"라며 "급진적 이슬람 원리주의 조직인 살라피스트(Salafist)의 영향력이 커지는 곳이 특히 그러한데, 이 지역에서는 자경단이 처벌받지 않으며 독자적으로 행동해도 괜찮다고 생각하고, 정부의 무대응도 종종 그들 생각이 옳음을 입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과거 오스만 제국 시절만 해도 비무슬림들이 '2류 시민'일지언정 보호받을 자격은 있다고 여겨졌지만, 그런 사고방식은 거의 사라지고 말았다.

이에 대한 대책으로는 서방 정부들이 먼저 자국 내 무슬림 소수집단을 종교적 불관용에서 보호하고 두려움 없이 자유롭게 예배드리고 일할 수 있도록 보장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물론 칼과 총, 수류탄까지 허용할 수는 없다고 선을 그었다.

그리고 문제있는 이슬람 국가들에 제공중인 수십억 달러 규모의 원조를 지렛대로 사용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러한 사건이 계속될 경우 원조를 끊으라는 것이다. 외교적 압박만이 아니라, 무역과 투자에도 '모든 국민에게 양심과 종교의 자유 보장'이라는 조건을 내걸어야 한다고 신문은 말했다. 뉴스위크는 "서방에서 등장하는 이슬람 혐오증을 둘러싼 과장된 이야기에 혹하지 말고, 오히려 이슬람권에 만연한 기독교 혐오증에 단호히 대처해야 한다"며 "관용은 모두를 위한 것이지만, 스스로 관용을 베풀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이를 예외로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대웅 기자

릭 워렌 "하나님=알라" 논란에 해명

기독교 삼위일체 하나님은 무슬림의 알라와 분명 달라

미국의 가장 영향력 있는 목회자 중 한명인 새들백교회의 릭 워렌 목사가 크리스천과 무슬림이 동일한 신을 섬긴다는 항간의 보도에 대해 해명했다.

오렌지카운티 레지스터는 〈릭 워렌이 무슬림과의 다리를 놓다(Rick Warren builds bridge to Muslims)〉라는 기사에서 그가 복음주의 크리스천과 무슬림 간에 단절을 치유하기 위해 남가주 모스크들과 협력한다고 보도했다.

이 기사에 따르면, 그는 크리스천과 무슬림이 동일한 신을 섬기고 예배한다는 신학적 원칙을 제안했다. 그러면서 크리스천과 무슬림은 서로 선교하지 말아야 한다고도 했다.

이 보도가 나가자마자 난리가 났다. 해당 기사에는 3백건 이상의 댓글이 달리며 뜨거운 논쟁이 붙었다. 이 기사가 논쟁이 되자 릭 워렌은 크리스천포스트에 보낸 해명서에서 "새들백교회는 예수 그리스도가 구세주이며 삼위일체 하나님이심을 무슬림들에게 전하고 있다"고 밝혔다.

릭 워렌 목사

그는 "나는 무슬림들을 매우 사랑하지만 (OC 레지스터에 보도된) 이 기사에는 몇가지 오류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미 말했듯이 크리스천과 무슬림은 신에 대한 다른 관점을 갖고 있다. 우리는 예수를 하나님으로 믿지만 무슬림들은 그렇지 않다. 우리는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으며 이는 셋으로 분리된 하나님이 아니라 삼위로서 일체인 하나님을 믿는 것이다"라고 강조했다. 또 그는 "새들백교회는 남가주의 어떤 모스크와도 협력하고 있지 않다"고 단언했다. "예수만이 유일한 구주이며 우리 모두는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하다"고도 말했다.

그는 OC 레지스터의 보도에 대해 "그것은 그 기자가 잘못 쓴 것이지 내가 쓴 것이 아니며 나는 그가 쓴 글에 동의하지도, 그렇게 믿지도 않는다"고 강조했다.

김영신 기자

드디어 LA 분원 OPEN!! 3003 W. Olympic Bl. #201 (213) 385-5833

당뇨,고혈압 특수침술 전문 한의원

- 그 어디서도 보기드문 놀라운 관리 · 조절 한의원!
- 경이로운 특수 한방진단으로 오장육부의 허실판단! - 상상하기도 힘든 빠른 흐름의 특수침술!

이번주 강의: 침술과 특수진맥에 대해 알아본다

春旺木 其脈弦 秋旺金 其脈索 春特秋脈 金來剋木 故 知必死 庚辛申酉 金旺之日也 夏旺火 其脈洪 冬旺水 其脈石 夏得冬脈 水來剋火故 知必死 壬季子該 水旺之日也 봄에는 목이 왕성하고 그 맥이 현하다. 가을에는 금이 왕성하고 그 맥이 삼하다. 봄에 추맥을 얻으면 금이 와서 목을 극하므로 반드시 죽는것을 알수있다. 경신일과 신유일은 금이 왕성한 날이다. 여름에는 화가 왕성하고 그 맥이 홍맥이다. 겨울에는 수가 왕성하고 그맥이 석맥이다. 여름에 동맥을 얻으면 수가 와서 화를 구하므로 반드시 죽는것을 알수있다. 임계일과 자해일은 수가 왕성한 날이다. 이렇듯 진맥을 통해서 병의 위중을 알았으니 고래의 선인들의 영험함을 느낀다. 청한의원은 특수진맥을 통해서 환자가 말하기도 전에 오장육부의 상태,병의관계,기형의 움직임을 통한 놀라운 허실판단을 통해서 체질의 약함과 무슨 음식이 필요한지 또한 미래의 강건한 체력을 도와주는 놀랍고도 경이로운 특수진맥의 한의원이다.

이렇듯 특수진맥을 통해서 오장육부의 기의 흐름과 어디가 약하지 무엇이 원인인지를 잘 알아서 무슨 음식을 먹는게 좋은지 안다면 병을 예방하고 병이 걸리더라도 강건한 몸으로 빨리 회복하게 된다. 한 중년의 남성이 한 일주일 정도 어깨통증으로 팔이 앞뒤로아래위로 힘들게 움직이니 내원한바 견우와 특수침혈을 통해 단 10분정도 자극후에 그 즉시 통증이 멎게됐다. 한 60세 정도 여성이 찾아와 간부위에 물혹이 있어서 통증이 심해서 참기힘들어 하나 내관과 특수침혈을 시술한바 그 즉시 통증이 멈추니 참으로 놀라와 했다. 한 70세정도 남성이 좌골신경통으로 눕거나 일어서거나 조금만 걷기만해도 엉덩이가 칼로 째듯 아프다면서 수년간 침술 진통제로 고생한바 본원에 와서 특수침술과 특수한약 복용후 통증이 사라지니 믿기 어려워했다. 한 할머니이 척추를 다쳐서 꼼짝도 못한다고 등에 업혀서 오면서 그 고통소리 '아이구 아이구' 하면서 괴로와하니 침혈을 5개정도 주면서 5분도 안돼서 일어섰다 앉았다 하니 그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믿기 어려운듯 특수침의 위력을 새삼 느껴했다. -

특별 절호의 기회!
놀라운 당뇨 신선단 2병 사면 2병 FREE!
당뇨병에 희소식!!

"원 세상에 이런 일이" 믿어지지 않는 놀라운 치유체험, 상상하기도 어려운 너무나 좋고, 고마운 자연치유

Torrance거주 김 HW씨
저는 당뇨로 13년동안 아파왔는데 현재는 당뇨 양약알약을 하루 4알씩먹고도 모자라서 인슐린 20Unit을 맞고도 공복혈당이 180~200이상씩 나오면서 눈이 침침하고 다리부위가 약간씩 부었고 몸이 극도로 피곤해서 삶의 의욕을 잃었습니다.
특히 저의 친정어머니는 당뇨합병증으로 돌아가셨고 제가 아는 분은 당뇨를 오래 앓다가 결국 허벅지까지 절단하는것을 보고 나도 올때까지 왔구나하면서 무척 걱정을 하면서도 병원에서는 당이 Control이 안된다고 또 인슐린주사양을 올려야한다고 하는데 정말 무척 두렵고 미래의 큰 걱정으로 눈이 안보이거나 신장투석하면 어떡하나 매일매일 무서웠습니다.
그런데 광고를 통해서 청한의원 만나게 되서 지금은 한달조금정도 치료받았는데 인슐린 주사 다 끊고도 아침에 공복혈당이 100정도이니 저는 정말 믿기지도 않고 너무 감사하고 병원에서도 깜짝 놀라와 했습니다. 그래서 저처럼 당뇨로 고생하시는 분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까 제 치료체험을 들려드리고 당뇨에서 어느정도 합병증에서 벗어나서 행복하기를 바랍니다.

Fullerton 거주 최 KS씨
저는 77세로 저의 남편은 이비인후과 정신과 의사였고 저의 집안은 거의 의사가 대부분인데 제가 당뇨로 30년정도 앓다가 현재는 인슐린 25Unit씩 2번 500ml맞으면서도 Control이 안됐고 주사맞기전에 당을 재보면 무려 400~500정도 나왔어요. 그리고 인슐린 주사를 빨리 안맞으면 눈이 침침하고 잘 안보여서 무척 답답했고 다리도 조금 붓기 시작했고 허리통증 및 온몸이 너무 쑤셔서 꼼짝도 못했는데 여기와서 치료한지 2달여남짓 됐는데 정말 신기하게도 믿기 어려운 일이 생겼죠. 세상에 인슐린 50Unit에서 이제는 저녁에 5Unit정도 어떨때는 전혀 안맞아도 당이 98 혹 100이 안나올때도 많았죠. 제 집안식구들은 거의 양의사라 참으로 저도 처음에 안믿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제자신도 놀랍고 세상에 이런일도 있구나 제 주위에 보면 수많은 친구들이 당뇨,고혈압으로 눈이 안보이고 다리 짤르고 신장이 망가져 돌아간것을 보면 무척 안타까와요. 저는 언제든지 당뇨로 고생하는 분들께 제 치유경험사례를 들려주고싶어요. 그래서 그 무서운 합병증에서 벗어나길 바래요. 저는 기독교인입니다. 오로지 하느님께 감사드리고 청한의원 알게되서 기쁘고 이 행복을 나누고 알려주고 싶어요. 그래서 당뇨합병증의 무서운 병마에서 벗어나길 바라는 마음입니다. 감사합니다.

왜 당뇨신선단이 좋은가?
더 자세한 사항은 www.shinsundan.com을 참조
24시간 주문전화 714.636.1412

많은 환자들이 말한다. 너무나 좋고, 고맙다고, 정말 필요한 자연 치유

절호의 기회!! 믿어지지않는 놀라운 시술!!

*참으로 특이한 특수침술 예)오래된 오십견,요통이 그 즉시 통증이 사라지고 증상이 개선되는 놀라운 침법
*오랜 경험에서 말하는 오장육부의 기혈을 예지하는 특수한방진단
*당뇨,고혈압을 관리,조절하는 한의원

Coupon
당뇨,고혈압,고지혈,복부비만 Detox,장청소 프로그램 및 침술
50% off 12/30/11까지

청 한의원 714 636 1412(24hrs) 714 349 7995 9355 Chapman Ave. #108 Garden Grove, CA 92841

숲에서 나오니 숲이 보이네

김세환 목사
LA연합감리교회

새벽 예배를 드리려고 하이웨이를 운전하고 오는데, 라디오에서 "숲"이라는 노래가 나옵니다. 예전 청년 시절에 즐겨 부르던 노래입니다. 원래는 시인과촌장이라는 포크 그룹 가수들이 불렀는데, 저는 미안하지만, 가수 양희은 씨가 맑고 영롱한 목소리로 부르던 것을 더 좋아합니다.

"숲에서 나오니 숲이 보이네. 푸르고 푸르던 숲!"

참 아이러니한 말이지만, 숲을 보려고 숲 속에 들어갔는데 도무지 숲을 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다 포기하고 숲에서 나오니 비로서 숲이 보이더라는 가사말입니다. 숲 속을 헤맬 때는 숲이 그렇게 푸르고 아름다운 줄을 몰랐습니다. 숲 속에서는 돌과 자갈만이 발 뿌리를 붙잡습니다. 오르막과 내리막이 반복되면서 무릎에 힘이 빠지고 허벅지에서 쥐가 납니다. 흐르는 비지땀과 가쁜 숨 때문에 말이 산행이지 실제로는 피곤한 노동입니다.

그런데 드디어 하산을 해서 멀리쯤 가다가 뒤돌아 보니 푸르른 산 전체가 한 눈에 들어옵니다. 참으로 아름답습니다! 왜 산 속에 있을 때는 그 밟고 있던 산이 그토록 아름다운 줄을 몰랐을까요? 어찌 보면 이 노랫말이 우리 인생을 대변해 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은퇴하신 목사님들로부터 자주 듣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제서야 비로서 목회가 뭔지를 알 것 같은데 이미 은퇴를 하고 말았다"는 아쉬움입니다.

그런 하소연의 말씀을 들을 때마다, "나도 언제고 그 말을 내 입술로 되풀이 하는 날이 오고 말 것"같은 불길한 예감에 사로 잡히곤 합니다. 사람들은 누구나 너무 집착이 강하고, 목적하는 바가 분명해서 소중한 것을 보지 못하는 청맹과니들입니다. 천성이 근시안(近視眼)이라서 당장 앞에 있는 것 밖에는 보지 못합니다. 나중에 시간이 다 지나고 나서야 비로서 "아뿔사! 그게 아니었구나!" 탄식하면서 애꿎은 턱만 비비게 됩니다.

나를 닮은 자식들이 얼마나 귀여운지! 지금 나와 함께 하고 있는 인생의 동무들이 얼마나 소중한 존재들인지! 그리고 내가 지금 누리고 있는 변덕맞은 이 인생길이 얼마나 달콤한 비단길인지, 간과하며 살아가는 것이 인생길입니다. 분명 사람이 먹기 위해서 태어난 존재가 아닐진데, 어리석게도 평생을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누릴까?"에만 집중하다가 소중한 인생산행을 다 마치고 맙니다. "먹고 살기 바쁘다"는 핑계가 대단한 만병통치약이나 되는 것처럼, 이 사람 저 사람에게 남발하며 살아갑니다. 가끔, 병원이나 양로원에 가 보면, "다시 한 번만 살 수 있다면 이전과는 다르게 살겠다"고 고백하는 노인들을 자주 봅니다.

아직도 산 중에 있다고 생각되시면 기억하십시오! 아무리 힘든 순간이라도 먼 훗날 뒤돌아 보면, 그것은 당신이 그리워할 아름다운 숲의 일부입니다.

기독일보

편집고문 : 박희민, 이원상, 박기호, 방지각, 김중언, 고승희, 민종기, 정우성, 김혜성
발 행 인 : 이인규 **편집국장** : 토마스 맹
지 사 망 : LA, 뉴욕, 샌프란시스코, 워싱턴DC, 시카고, 애틀랜타, 시애틀

대표전화 : (213) 739 - 0403
팩스 : (718) 228 - 9506 / **E-mail** : chdailyla@gmail.com
주소 : 621 S. Virgil Ave. Suite 260, LA, CA 90005

신앙의 슬럼프는 하루 아침에 일어나는 사건이 아닙니다

김지성 목사
글로발선교교회

경영학에 '하인리히 법칙'이라는 용어가 있습니다. 1930년대 초 트레블러스 보험사의 관리감독자였던 허버트 하인리히가 산업재해 사례 분석을 통해 발견한 통계적 법칙입니다. 그것은 대형사고가 발생하였다면 이미 그전에 유사한 29번의 경미한 사고가 있었으며, 그 주변에 또 다시 300번 이상의 징후가 나타난 바 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이 통계적 법칙은 이런 사실을 발견한 하인리히의 이름을 따 '하인리히 법칙'이라 부릅니다. 통상 하인리히 법칙은 1대29대300 법칙이라고도 불리웁니다. 즉 대형 사고와 작은 사고, 그리고 사소한 사고의 발생 비율이 1대29대300이라는 말입니다.

이는 대형 사고는 우연히 또는 어느 순간 갑작스럽게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이전에 반드시 경미한 사고들이 반복되는 과정 속에서 발생한다는 것을 실증적으로 밝힌 것입니다. 그리고 하인리히는 대형 사고가 일어나기 전 일정 기간 동안 여러 번의 경고성 징후와 전조들이 있었다는 사실을 입증시켰습니다.

다시 말하면 큰 사고는 항상 사소한 것을 방치할 때 발생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교통 사고가 잦은 곳은 대형 사고가 기다리고 있는 곳으로 보면 됩니다. 몇가지 잠재적인 징후들이 앞서거니 뒤서거니 하면서 우연처럼 겹쳐지면 큰 사건으로 이어집니다. 한번의 대형 사고가 일어나기 전에 여러 번의 작은 사고가 지나가고 잠재적인 사고는 더 많이 지나간다는 것입니다.

역사는 이 법칙을 법칙으로 증명합니다. 로마제국이 하루 아침에 세워지지 않았듯 로마의 멸망도 수많은 징후의 누적 속에서 진행된 것입니다. 이스라엘과 유다의 멸망도 하루 아침에 일어난 사건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경고 속에서 계속 누적된 멸망의 행위와 더불어 만들어진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역사적 교훈을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요? 결론부터 이야기하자면 "늘 깨어 있으라"는 것입니다. 언제 나타날지 모르는 무너짐의 징후를 포착할 수 있도록 항상 눈을 크게 뜨고 긴장을 늦추지 말아야 합니다.

마찬가지로 신앙의 슬럼프화는 특정 순간에 만들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신앙의 퇴보가 이루어질 만한 여러가지 조짐들이 먼저 있고 난 다음 나타납니다. 예를 들면 주일예배에 지각을 한다던가, 주일예배 준비에 소홀하다던가, 설교에 집중하지 못하고 졸고 있다던가, 교회 봉사를 등한히 한다던가 등등, 언뜻 사소한 것처럼 여겨질 수 있는 일들이 지속적으로 반복되어 누적되는 가운데 통제불능의 영적 슬럼프가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역동적이며 생명력 있는 신앙생활을 이루기 위해서는 깨어 있어야 합니다. 성경은 강력하게 명령합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베드로전서 5:8)" 깨어 있는 삶을 강조하기 위해 바울 사도는 강권합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데살로니가전서 5:16-18)" "항상, 쉬지 말고, 범사에"라는 표현을 통해서 늘 깨어 있는 삶을 강조한 것입니다.

혹 나에게 신앙의 슬럼프를 만들만한 여러 요소들을 사소하게 여기며 지나치고 있지는 않은지, 역동적이며 생명력 있는 신앙생활을 무너뜨리지 않도록 한번쯤은 짚고 넘어가는 것이 좋을 듯 싶습니다.

故 강영우 박사

엄영민 목사
오렌지카운티제일교회

강영우 박사가 소천하셨다. 작년 말 췌장암 진단을 받고 얼마 살지 못할 것이라는 소식을 들은지 한 삼 개월쯤 되는 것 같다. 나는 개인적으로 강영우 박사를 만나 본 적이 없지만 실명을 딛고 일어선 그의 입지전적인 삶과 장애를 지닌 한국인으로서 미국 정부 요직에 임명됐다는 점 그리고 무엇보다도 신앙인으로서 살아온 자신의 삶에 대한 간증을 통해서 그를 알고 있다.

특별히 장애를 지닌 아버지로서 자녀들을 키우면서 겪어온 그의 이야기는 아이를 키우는 아버지로서 큰 귀감이 되었다. 감수성이 예민한 틴에이저 시기를 지나는 아들이 앞을 보지 못하는 아버지에 대해 큰 부담을 느끼다가 그 아버지가 불을 켜지 않는 캄캄한 밤 자신의 침상에서 책을 읽어주는 남다른 모습을 보면서 "Voice in the Darkness" 즉 어둠 속의 목소리라는 에세이는 많은 아버지와 아들들의 마음에 적지 않은 감동을 주었다.

그리고 그런 어려움 속에서 자신 스스로 입지전적 삶을 살았을 뿐만 아니라 두 아들들을 모두 잘 키워낸 것은 한편 부럽기도 하고 존경스럽기조차 했던 분이다. 언젠가 한번 교회에도 모시고 싶은 마음이 있었는데 차일피일하다 이제 다시는 모실 수 없는 분이 되고 말았다.

강영우 박사는 그 치열한 삶의 여정을 통해서 우리 모두에게 큰 도전과 교훈을 많이 남겨 주었다. 먼저는 실명이라는 절대적인 절망 앞에서도 굴하지 않고 자신의 길을 개척해 나갔던 그 의지와 결단에서 많은 사람들에게 귀감이 되었다. 조금만 어려움이 있어도 낙심하고 좌절하기 쉬운 많은 사람들 특히 젊은 세대들에게 있어서 그는 어떤 상황에서도 올바른 뜻을 세우면 길이 열린다는 살아있는 불굴의 의지의 상징같은 존재였다.

또 그의 간증 테이프를 들으면서 느껴지는 것은 어려운 일생을 살아 왔으면서도 그가 삶에 대해 상당히 긍정적이고 낙관적인 자세를 잃지 않았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 어느 집회에서 간증을 하면서 마치 보는 사람처럼 "이렇게 예배당에 가득 찬 사람들을 보니 마음이 흡족하다"며 자신의 장애조차도 유머로 받아들이는 여유를 보였던 기억이 있다. 그 한 마디에 장애인이라는 선입견으로 다소 무거웠던 좌중의 분위기가 일순간 환하게 변하는 듯 느껴졌다.

또 강영우 박사를 생각할 때마다 느껴지는 것은 가족의 소중함이다. 특별히 장애가 있는 그에게 시집을 와 한 평생 그의 눈이 되어 주었던 아내의 이야기는 언제 들어도 감동적이다. 모르긴 해도 강영우 박사가 한 평생 실명이라는 장애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많은 일을 할 수 있었던 배경에는 이 부인의 헌신과 내조가 절대적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그런 점에서 강영우 박사는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분이라고 할 수도 있을 것이다. 특별히 내가 설교에서도 몇 번 언급을 했듯이 강영우 박사가 삶의 마지막 순간에 그가 보여준 아름다운 모습은 지금까지의 그의 삶 못지않게 수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고 도전을 주는 모습이었다. 암이라는 진단, 그것도 불과 수개월도 못 살 것이라는 진단을 받고 초연이 살아 오면서 많은 신세를 진 사람들에게 감사의 인사를 전했고 그리고 자신의 재산을 정리해서 후학들을 위한 장학기금으로 내어놓은 이런 모습들은 정말 드물고도 귀한 믿음의 사람의 모습이요 다른 많은 사람들 특히 성도들이 본받았으면 하는 마음이 간절했다.

그런 의미에서 강영우 박사가 우리 한국인이요 더 나아가 믿음의 사람이라는 사실이 얼마나 자랑스러운지 모르겠다. 나 자신도, 또 우리 모든 성도들도 이 귀한 교훈들을 가슴에 새기고 살고 또 죽기를 바란다.

여드름,
성공률 99%

효과 없을시 100% 환불

몸속의 원인을 다스리고
피부의 내면과 외면을
동시에 치료합니다.

첫상담 무료!

경산 한의과병원
KYUNG SAN ACUPUNCTURE CLINIC
원장 류재규
경산 한의과 대학 교수

Tel: 213.380.0853
3030 W. Olympic Blvd., Suite 202-203(삼호관광 몰 2층) LA, CA 90006

골프 부상과 한방 치료

윤 제 필 원장
자생한방병원 미국분원 대표

얼마 전 필자가 근무하는 자생한방병원 LA분원에서 PGA 선수들과 의료협약식을 진행했다. 한의학이 처음으로 PGA 선수들을 공식적으로 후원하는 자리인만큼 미국과 한국의 매스컴들이 한자리에 모려 열띤 기자회견을 가졌다. 한국의 대표적인 프로 골퍼인 최경주 선수를 필두로 호주 국적의 대니 리, 영국의 폴 케이시, 미국의 제이미 러브마커가 참여해 앞으로의 건강관리를 자생한방병원의 한의학적인 치료를 통해서 하겠다고 공식적으로 선포를 했다.

특히 메이저 대회에서는 자생한방병원의 의료진이 파견되어 경기 내내 최상의 컨디션을 유지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는 내용의 협약을 맺게 되어서 앞으로 PGA 메이저 대회에 한의사가 의료진으로 선수를 직접 치료하는 모습이 ESPN과 같은 메인방송에 나올 일이 조만간 있을 것 같다.

골프에 있어서 가장 많이 부상이 발생하는 부위는 어깨, 무릎, 허리, 손목과 팔꿈치의 순이다. 최경주의 허리, 대니 리의 손목, 폴 케이시의 어깨, 제이미 러브마커의 허리, 타이거 우즈의 무릎 부상 등만 보아도 골퍼들의 부상이 오는 부위를 쉽게 짐작할 수가 있다.

대니 리는 자타가 공인하는 21살의 아주 유망한 골퍼이다. 하지만 작년 유럽리그를 뛰면서 손목의 부상이 심해졌고 결국은 텍사스에서 자생 플러튼 분원을 방문해서 치료를 받게 되었다. 대니 리의 손목 통증의 원인은 반복적인 스윙으로 인한 건초염이었다.

그는 이틀간의 동작침과 꾸준한 추나약물복용으로 부상에서 회복되어 유럽리그에서 좋은 성적을 거두고 2012년 PGA 출전권을 따내게 되었다.

그러나 연초부터 소니오픈에서 재발된 손목 통증으로 결국 페블비치 경기에선 자생한방병원 의료진이 파견되기도 했다.

폴 케이시는 침치료에 매우 긍정적이다. 폴 케이시가 한방치료와 인연을 맺게 된 것은 매우 드라마틱하다. 폴은 오랫동안 골프 스윙시 발가락 관절의 통증으로 고생을 해 왔는데, 작년 한국에서 열린 신한동해오픈에서 엄지발가락의 통증이 심해졌고, 이를 알게 된 최경주 프로의 도움으로 자생한방병원에서 관절침치료를 받고 나서 통증이 극적으로 감소되어, 결국 우승을 하게 되었다.

경기 후 우승소감에 대한 기사의 제목이 '침치료 받아서 우승을 했다'고 나올 정도로 폴은 한방치료에 매료가 되었다. 하지만 최근 어깨 탈구로 인한 부상으로 각종 경기에 불참을 하고 있지만 자생의 추나약물과 재활치료로 재기의 길을 다지고 있다.

23살의 제이미 러브마커는 캘리포니아 USC대학 출신으로 아마추어 시절부터 아마추어 상금왕이라는 타이틀을 가지고 있을 정도로 PGA 유망주이다. 하지만 작년 허리디스크를 진단받고 수술을 한 후에, 수술후유증을 관리할 방법을 찾던 중, 매니지먼트 회사의 권유로 한방치료를 접하게 되어 지금도 자생 미국분원에서 동작침과 추나약물을 복용하면서 재활치료를 받고 있다.

PGA 선수 뿐 아니라 LPGA 신지애 선수도 작년 허리부상으로 한 달간 자생한방병원에서 입원 집중치료를 받았고, 박세리, 박지은 등 LPGA 선수들도 크고 작은 부상으로 한방치료를 받았다.

국내 프로 골퍼 뿐 아니라 외국 프로 골퍼들도 한방치료를 선호하는 이유가 무얼까? 필자가 프로 골퍼들을 치료하면서 항상 듣는 이야기는 첫번째, 효과가 좋다. 두번째, 치료 후 몸의 컨디션이 많이 향상이 된다는 점이다.

양방의 대표적인 통증 치료는 주사나 약물치료인데 이러한 치료는 일시적으로 통증이 제어가 되더라도 통증의 원인이 된 부상 부위를 약하게 만들어 쉽게 재발한다는 단점이 있고, 무엇보다도 4일동안 강한 정신력을 요하는 골프경기에서 체력과 집중력이 떨어질 수 있다는 단점이 있다.

하지만 한방치료는 침과 한약, 추나치료로 통증을 제어하면서도 체력보강 및 인체의 밸런스를 잡아준다는 장점이 있어서, 한번 치료의 효과를 맛본 프로 골퍼들은 계속해서 한방치료를 선호하게 된다.

한방치료는 단순히 골프부상을 치료하는 데에 그치는 것이 아니다. 스윙시 근육의 긴장감과 골반의 틀어짐으로 인한 비거리의 감소와 부정확한 스윙 궤도를 개선하는 데에도 많은 효과가 있다. 실제로 자생한방병원에서 골프척추관절클리닉을 운영하면서 치료 후 관절의 가동 범위가 증가되고 골반의 좌우불균형을 교정했더니 비거리가 증가되고 슬라이스나 훅이 많이 줄었다는 환자들을 많이 경험하게 된다.

하지만, 골프에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다치지 않고 골프를 오랫동안 즐기는 예방적인 관리이다. 이는 프로 골퍼나 아마추어 골퍼 모두에게 공통된 관심사인 것 같다.

이에 몇가지 팁을 나열하자면, 첫번째, 시합 전에 10분 이상 스트레칭을 충분히 해야 한다. 두번째, 카트를 자주 타기 보다는 필드를 산책한다는 기분으로 자주 걸어야 한다. 세번째, 중간중간 반대방향으로도 스윙을 해서 골반의 좌우 밸런스를 유지해야 한다. 네번째, 홀컵에 있는 공을 꺼낼 때에는 허리를 굽히지 말고 무릎을 굽혀서 꺼내어 허리로 가는 부담을 줄여야 한다. 다섯번째, 경기가 끝난 후에는 항상 따뜻한 물로 샤워를 해서 전신의 긴장된 근육을 충분히 풀어 주어야 한다.

다들 아는 이야기지만, 타이거 우즈는 작년 무릎부상으로 슬럼프에 빠져 성적이 많이 좋지 않았다. 최경주 프로와 경기 중에 만나서 건강에 대해서 깊이 있게 이야기를 한 적이 있었는데, 우즈는 이 세상의 모든 무릎에 관련된 치료는 다 받았지만, 통증이 줄지 않는다고 최경주 프로에게 털어 놓았고, 최 프로는 적극적으로 한방 치료를 받을 것을 권했다고 한다. 이때 우즈는 적극적으로 생각해 보겠다고는 했지만 아직까지 한방 치료를 받지 않은 것 같다.

하지만, 금년 한국 한의학이 PGA에 진출을 시작으로, 조만간 타이거 우즈의 무릎을 치료하는 것도 시간 문제가 아닐까 싶다.

지금은 교회가 개혁할 때이다(3)

송 택 규 목사
세계크리스천영성 대표

5. 믿음의 점검과 은혜의 비밀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그냥 버려두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의 삶을 보시고 관찰하시며 저울에 달아(척량)보신다. 그리고 우리에게 권면하시고 격려하시며 또 어떤 때는 책망도 하시며 구원에 이르도록 도와 주신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믿음이 합격선에 이르지 못하면 하나님의 징벌이 따를 수도 있다.

BC 539년경 바벨론의 왕 벨사살이 귀인 1천명을 왕궁으로 초대하여 연회를 베풀던 중 벽면에 손가락이 나타나 "메네메네 데겔 우바르신"이라고 글자를 썼다. '세고 또 세고 저울에 달아 보았지만 부족하다'라는 뜻이다.

그날 밤 왕은 죽고 바벨론도 얼마 안 가 망하였다. 결국 바벨론 왕은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았기에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된 것이다.(단5:5, 24-28)

이렇게 하나님은 우리의 삶 속에 들어 오시어 우리를 불꽃같은 눈으로 보시고, 들으시고, 아시고, 감찰하시며, 심판하시는 분이시다. 그러므로 에스겔 선지자는 에스겔서47:1-12에서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척량하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다.

1)회막문(물이 흐름)=옹달샘 은혜

문지방 밑에서 물이 흘러 나오는 상태를 말하는데 이것을 비유로 옹달샘 은혜라고 한다. 옹달샘이 있기에 산토끼가 물을 먹고 간다. 그러나 옹달샘은 너무 양이 적어 아무 일도 할 수 없다. 영적으로 너무 어려서 어린 아이와 같이 돌보지 않으면 늘 불안해 하고 초조해 한다. 늘 시기와 분쟁이 따라다니고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한다.(고전3:1-4)

2)성막뜰(발목에 참)=도랑물 은혜

하나님께서 척량해 보니 믿음과 은혜의 물이 발목에 찼다고 하신다. 이것은 도랑물 은혜인데 물이 가냘프게 흐르지만 손, 발을 적실 정도는 된다. 영적으로 볼 때 신앙이 성장은 했으나 아직도 내 의가 퍼렇게 살아서 풍요로움이 없고 살벌하고 세상적 기세가 등등하여 찬바람이 분다.(약4:11-12)

3)번제단(무릎에 참)=시냇물 은혜

하나님이 척량해 보시니 믿음과 은혜의 물이 무릎에 찼다고 한다. 이는 시냇물 은혜인데 소리도 요란하고 작은 물고기와 주변에 식물들도 살며 사람들이 물놀이도 할 수 있다. 영적으로 볼 때 좀 소란스럽기는 하지만 상당히 믿음이 성장한 단계로 자기 의와 혈기가 많이 줄어 기쁨과 내적 평화가 좀 생긴 상태이다. 그러나 아직 성숙되지 못하여 내 눈의 티는 보지 못하고 남의 눈의 티만 보여 부정적으로 불만을 표출한다.

4)물두멍(허리에 참)=강물 은혜

하나님이 척량하시니 물이 허리까지 찼다고 하신다. 소리도 없이 묵묵히 흐르는 강에는 큰 물고기를 비롯한 수많은 종류의 고기들이 살며 강 주위에는 많은 식물들이 살고 물 위로는 배가 떠 다닌다. 영적으로 강물과 같은 은혜가 오는 단계로 내 의를 완전히 내려놓고 하나님의 주권에 굴복하는 단계이다.(롬6:4-5, 엡4:22-24, 고후5:17) 마지막 깨어지고 부서지는 단계로 그동안 세상 속에서 살아 왔던 세월이 억울하고 분하여 고통이 따르게 된다. 고통이 끝나면서 모든 사물을 보는 시각이 자기 차원이 아닌 하나님의 차원으로 바뀌게 되고 하나님만이 생명임을 절감하며 아직도 영적으로 완전히 채워지지 못한 갈급함으로 고민하게 된다.

5)성막(턱 밑에 참)=바다 은혜

하나님이 척량하신 물이 턱 밑까지 찼다고 하신다. 몸이 자동적으로 뜨게 되는데 이는 자유함을 뜻하며 바닷물과 같은 은혜를 말한다. 바다는 지구 곳곳에서 들어오는 모든 것들을 다 수용하며 큰 배들이 세계 어느 곳이나 자유로이 다닐 수 있는 자유함이 있고 변화 무쌍한 능력과 놀라운 힘이 있다.

이는 영적으로 볼 때 완숙한 단계를 말한다. 이 세상 어떤 것도 관용하고 소화하여 걸리는 것이 없고 성령님과 동행하므로 가는 곳마다 형통하여 남을 잘되게 하고 생명을 살리는 역사가 일어나 능력있는 삶을 살게 된다.(엡4:13-14, 겔47:8-12) 이것이 바다같은 은혜이다.

이렇게 구원의 믿음은 '믿습니다' 말 한마디로 단번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성장하여 가는 것이다. 한단계 한단계 업그레이드 되는 것이 하나님이 주신 비전이요, 은혜인 것이다. 또한 성장하여 가는 자체가 소망이요, 행복이다.

그러므로 교회는 성도들에게 구원으로 가는 과정마다 비전을 심어주고 훈련, 교육하여 점차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을 배우는 사람들로 만들어 가야 할 것이다.

➡ 다음 호에 계속

CHRISTIAN BUSINESS

www.chdaily.com
광고문의 213.739.0403

Classified AD

훼밀리 자동차 FAMILY AUTO SALES
새차 리스, 중고차 최고가 매입
HONDA, TOYOTA, LEXUS, BMW, MBZ
(하이급차, 고급차, 유럽차, 일제차)
213-453-5900 / 714-743-1000
1230 W. Olympic Blvd. Los Angeles, CA 90015
중고차 황제 김기형

★ 집.건물 경매 STOP!!! ★
긴급경매 NOT,TRO,QWR,BK 전문
• 최장기간 연장 "합법거주" 약속 퇴거명령번복, 연방법, 주법 의거함.
• 그외 형사상채, 마약소지및판매, 강도, 강간, 폭행, 배우자폭력, 음주운전…
"당대 최고의 변호사들이 변호합니다"
메리츠 법률그룹 / 이진우
18000 STUDEBAKER ROAD. #700. CERRITOS, CA 90703
TEL:888-210-1238 / FAX:888-210-1239

한국에서 미국으로
송금 전문
(213) 342-7776 윌셔+킹슬리

치과 기공 기술 학생모집
(면허 소지한 원장이 직접 지도합니다)
2월 24일(금) 시험대비 CDT 치과기공사 면허 응시생 모집
안정된 기술직업 – 한번 시작해 보세요!
• 4-6개월, 1년 과정, 기초부터 철저 지도, 현장실습, 취업알선
• 현재 속성과정 학생모집 (왁스, 포셀린, 메탈, 모델, 의치)
• 전 치과 기공 대학 학장, 현 면허 시험 강사 특별 지도
• 각종 장학금 혜택 목사님 추천서 10%DC
초기 이민자, 재취업 기술교육
제퍼슨 치과 기공 대학 (213) 384-3006
2140 W. Olympic Bl. #310 (윌셔은행 3층)

법률 문제로 답답한 가슴을!!!
공인 법무사(CERTIFIED L.D.A & PARALEGAL #227 / BOND 57BSBFJ1090)인
제가 속 시원하게 도와드리겠습니다.
변호사한테 가시기전에 "꼭 먼저" 만나 보아야 할 사람 입니다!
퇴거.파산.이혼.이민.민사소송
기타 각종 법정 서류 작성
714-349-8934 (한국말) 잔 안
714-667-0728 (영어) 2112 N. MAIN ST. #290, SANTA ANA
213-487-0728 (영어) 1543 W. OLYMPIC BL. #422, LA

썬라이즈 페인팅
SUNRISE PAINTING
• 페인트, 루핑, 플러밍, 목수일
• IN & OUT SIDE
• 상업, 주택, 아파트 23년 경력
〈 모든일 직접 정직하게 저렴하게 해드리겠습니다. 〉
Paul Seo, TEL : 213-884-7055 / 213-858-8484
418 S. Newhampshire Ave. LA, CA 90020

사고 팝니다 New & Used Buy & Sell
각종 조립식 선반 전문
Select color
야외용 천막 Canopy Size (5"x5") (10"x10") (10"x20")
상점 및 그라지용 Boltless Shelving
창고용 Pallet Rack
마켓용 Gondolas
99센트 마켓 선반, 창고 선반 수량 불문 현찰 매입
중고 선반 대량 보유
(323)855-5687 / (213)200-3050 / (213)623-5491
646 S. San Pedro St. Los Angeles, CA 90014 Downtown LA (Between 6th, 7th St)

식재료 도·소매
■ 주일 예찬 식재료 (양념, 젓갈, 김, 김치 각종 장류, 밑반찬)
■ 교회 바자회 물품 (음료, 스넥, 견과류, 각종 공산품 등)
■ 참숯 (바베큐용)
■ 각종 Tea (커피, 둥굴레, 홍차, 녹차 등)
☎ 818-306-7652

금 삽니다
최고가 현금매입
10K, 14K, 18K, 금, 은수저 등
(무료출장매입)
LA:213-407-8759 / Other:714-293-9701

Natural Hot Spring!
엘시노 천연유황온천
LA에서 제일 가까운 온천장!
• 교회 단체를 위한 예배실(컨퍼런스 룸)
• 가라오케, 바베큐 시설 완비
• 가족단위 위한 객실에 온천탕 구비
• 주변에 호수, 골프코스, 아울렛, 와이너리
☎ (951) 674-2581 / 9997
316 N. Main St Lake Elsinore, CA 92530
1-15 South Exit Main Street

귀국 자동차운송 업계최저 $950 삼성통운 SAMSUNG EXPRESS
귀국 · 시내 · 타주이사 · 차량운송
한국인 직원이 한국식 포장이사를 해드립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고객 사랑을 실천하겠습니다~
무료전화 877-580-2424
323-582-2424
8122 Maie Ave. #1, Los Angeles, CA 90001 www.easy2424.com

3개월 단기 과정으로
유아교사 자격취득
• 유아교사, 원장 Certificate Program
• 3개월 집중 과정으로 유아교육 현장 실습을 포함하는 전문 교육을 받게 됩니다.
• 졸업 후 Preschool, Day Care Center, Family Child Care에 취업 및 유아 교육기관 설립을 안내해 드립니다.
TEL. 714-932-9728 스탠톤 대학교
12666 Brookhurst St, Garden Grove, CA 92840

'아토피, 비염, 천식' 한방으로 해결합니다.
편강환
▶ 300여개국 해외진출
▶ 7만명 이상의 환자 진료
스탠톤대학 (부속) 편강한방병원
9618 Garden Grove Blvd., #221 Garden Grove, CA 92844
Tel. 714-539-6562 Fax. 714-539-9077

A-1 정비
엔진 & 미션 전문
오일 교환
76 오일사용
$23.99 *tax 6cyl.
$18.99 *tax 4cyl.
$28.99 *tax 8cyl.
(Carbon Filter Extra)
✓ 트렌스미션 ✓ 타이밍벨트
✓ 브레이크 ✓ 툰업정비
10% 할인
Tel. 323.737.2922
Trans (323)731-0613
Engine (323)752-2971

가나 JJ 플러밍 뻥 뚫어요!
▶ 메인 하수관 300피트 OK(초강력 머신 보유)
▶ 나무 뿌리로 자주 막히는 하수관(근본적인 해결)
▶ 싱크대, 욕조, 변기 등
▶ 노후된 파이프를 동 파이프로 교체
▶ 새거나 터진 파이프 신속하게 해결
▶ 각종 Faucets, 디스포잘, 보일러, Toilet(수리 및 교체)
맡은 고객께서 다시 찾는 플러머입니다.
Tel. 213-220-4123

dish NETWORK AUTHORIZED RETAILER
$29.99 /월, 12개월간
120개 이상의 미국채널
무료 HD채널 (60개)이상
무료 24시간 KBS
디시 네트웍 공인딜러 KNA
무료가입 및 설치문의 www.knamedia.com
1.888.894.8949

커텐 전문
가주 L.A. 커텐
"우드셔터, 각종 블라인드, 썬 스크린 롤러 Shade"
거리불문 무료견적
HunterDouglas Sunland Shutters 공인딜러
Tel. 213.447.1101

먹고 바르기도하는 알로에
인디안 알로에 베라
다년생 초본만을 선별하여 특정부위에 원액을 체험함으로 최고의 효과와 효험을 볼 수 있습니다.
99.6%
위장(위궤양), 방광, 신장, 전립선, 변비통, 피부상처, 화상 등에 치료와 예방
TEL.(213)736-6625
www.indianaloevera.com

sasafterschool.blogspot.com
믿고 맡기세요. 아이들의 성적이 달라집니다 K~6
Math
English
E.S.L
Writing
Bookclub
APPLE TREE ACADEMY
Pick up, 건강한 식단과 함께 학교공부 전반을 100% 도와 드립니다.
213.507.5045

명 치과
SANG DON CHOI-D.D.S.
213.387.2325
711 S. Vermont Ave. #Suite 111, LA, CA90005

Value Windows & Doors
이중창문교체전문
특별세일
10개 기본창문(햇빛차단 Low-E)
$2,699 + Tax
➡ 창문 10개이상 Order시 블라인드 가격 10% 할인

방수 · 루핑 LIC # 531243
지붕, 욕실, 벽, 발코니, 지하실, 창틀방수
크랙 물 새는 곳, 특수 방수공법
완벽 시공, 3년 개런티
213-327-9929

한국방송 + 미국방송 동시시청
TCO Satellite Inc.
DIRECTV SATELLITE TELEVISION
지금 신청하세요!
1-800-489-8775

창문 인테리어의 모든것 - VIVA BLIND
비바블라인드
상업용 ROLL SHADE 자체 전문 제작
• 커튼-맞춤전문(Custom Made)
• 블라인드 - Bass Wood, Faux Wood
• Bass Wood Shutters 전문
• 마루바닥 - 원목, 인조마루 취급전문
• 온돌마루
TEL.(213)-389-0070
1411 W. 8th Street, Los Angeles, CA 90017

크레딧카드
은행구좌
당일현금
◎ 한국구좌 및 신규구좌 가능
◎ 크레딧 700이상(20만이상)
*유학생 및 귀국자 특별플랜
T. 213-278-4466

홈페이지 제작
제작비용 걱정, 이제 그만!
저렴하고 빠르게 제작
풍부한 제작경험을 토대로 정성껏 제작해드립니다.
$499
제작문의 213.364.2124

보수 개혁주의 신앙으로 바른 신학 전수

HORIZON신학대학 대학원의 엄기환 총장 인터뷰

엄기환 총장

보수 개혁주의 신앙에 바탕을 두고 신학박사, 상담학박사 학위까지 수여하는 주정부 인가 신학교, HORIZON신학대학 대학원의 총장 엄기환 목사를 만나봤다. 엄 목사는 현재 재외한인예수교장로회 합동총회 총회장이기도 하다.

-타 신학교와의 차이가 있다면.

요즘 신학이 좌경화, 자유화되고 있다. HORIZON신학대학 대학원에서는 바른 신학, 개혁주의 정통신학, 보수신학, 청교도 신앙을 지키고자 한다. 그것이 가장 큰 특색이라 할 수 있다.

신학에 뜻은 있지만 경제적 여건으로 어려움을 겪는 학생들을 위해 최대 50-80%까지 장학금을 지급하려 한다.

요즘은 한인 신학생들조차 자유주의 신학에 물들고 또 공산주의나 사회주의 사상의 위험성에 대해서 잘 모르는 경우가 많다. 기독교 신학과 신앙을 수호하려는 학교의 비전이 나의 뜻과 일치해 이 학교의 총장직을 수락했다.

-학교의 학제에 관해 간단히 설명해 주신다면.

2007년 5월에 비영리 종교교육 법인으로 주정부 허가를 받았다. 보수 개혁주의 신앙에 바탕을 둔 차세대 지도자를 양성하고 평신도들의 신앙을 고양시키며 교회 회복에 비전을 두고 학교가 설립됐다.

신학과와 기독교 상담학과 두 개의 과를 외국인 학생 중심으로 운영하다가 한인들을 대상으로 시작하게 된 것이다. 현재 유학생을 유치하기 위해 I-20를 발행하며 7개 학위 과정을 운영 중이다. 신학과에서는 학사와 석사, 박사, 목회학 석사 과정을 두고 있다. 상담학과도 학사, 석사, 박사 과정을 두고 있으며 5월에 개강한다.

-덧붙일 말씀은?

목회자, 교육전문 사역자, 전도사, 주일학교 교사, 선교사를 소망하는 모든 이들에게 학교가 열려 있다.

목회학 석사(M.Div) 과정을 이수한 분들은 본 대학이 위탁한 총회에서 목사로 안수받게 된다.

우리는 세속화된 사회에서 바른 신학을 전수해 참 사역자를 양성하는 기관으로 자리매김 할 것을 약속한다.

문의: 213-736-5000, www.Huniv.org

빅터 박 기자

울지마 톤즈…

“이태석 신부의 리더십은 섬김”

'울지마 톤즈'를 제작한 구수환 감독의 미주 순회 초청 강연회가 동양선교교회에서 열려 이태석 신부의 삶을 재조명했다.

구수환 감독 미주 순회 초청 강연회 열려

'울지마 톤즈'의 감독 구수환 KBS PD 미주 순회 초청 강연회가 27일 오후 7시 30분에 동양선교교회(박형은 목사)에서 미주기독교총연합회(회장 송정명 목사)와 동양선교교회 주최, 미주아프리카회 망후원회 주관으로 열렸다.

'울지마 톤즈'는 아프리카 수단에서 의료봉사의 삶을 살았던 고 이태석 신부의 이야기를 담은 작품이다. 다큐멘터리 영화로도 상영돼 국내와 해외에서 40만 명 이상의 관객을 동원했다.

구수환 감독은 이날 다큐멘터리를 만들게 된 계기, 느낀 소감을 간증형식으로 강연했다. 구 감독은 강연을 시작하면서 “주위로부터 들은 이야기가 아프리카 현지에 한국의 슈바이처가 있다는 것이었다. 이것이 우리의 이야기겠다 싶어서 촬영을 하게 됐다”며 “이분은 우리가 선망하는 직업을 가진 의사이다. 하지만 그는 그 직업을 버렸다”고 말했다.

구 감독은 “아프리카 수단 톤즈에 가서 이태석 신부님의 흔적을 다 찾아보니 모든 것이 신부님의 손길이 닿은 것이었다”며 “한 낮의 기온이 50도가 넘고 물을 먹지 못하면 견딜 수 없고 제일 무서운 것이 말라리아 모기였다. 말라리아 모기에 물리지 않으려고 창문을 다 닫고 모기장을 설치하고 이불 두 장을 덮고 누우면 잠이 오지를 않는다”고 했다.

구 감독은 이태석 신부의 삶은 나눔, 섬김, 봉사의 단어로 압축된다고 밝혔다.

그는 “이 영화는 잘 만든 영화가 아니다. 종교성을 배제시키고 그분의 삶을 순서대로 나열했을 뿐이다”라며 “그런데 영화가 상영되는 곳곳마다 눈물을 흘린다. 이 신부님은 대단한 분이 아니다. 그분은 실천했고, 우리는 안했을 뿐”이라고 설명했다.

마지막으로 구수환 감독은 “진실이 담긴 사랑이 얼마나 큰 영향력을 드러내는지 직접 봐서 감사하다. 신부님과의 운명 같은 만남을 통해 나의 삶이 바뀌었다”며 “이 신부님이 지은 학교의 학생들 80%가 의사 지망생들이고, 이태석 의과대학교가 한국 정부와 남수단 정부의 합작으로 생길 계획이다. 이 신부님의 리더십은 약자를 위한 헌신, 군림하지 않는 자세, 조직의 의견 경청, 사회적 약자에 감사하는 마음, 즉 섬김의 리더십으로 스스로 정리해 봤다”고 말했다.

구수환 감독은 23일 뉴욕 퀸즈한인천주교회에서 강연을 시작해, 시카고를 거쳐 LA는 28일 성바실천주교회에서 마지막으로 미주 순회 강연을 마쳤다.

토마스 맹 기자

'울지마 톤즈'의 한 장면. 사진 가운데가 이태석 신부

“은혜 맛보면 주께 붙잡혀” Soli Deo Gloria 뮤지컬팀 재창단

“춤추며 그의 이름을 찬양하며 소고와 수금으로 그를 찬양할찌어다” (시편 149:3)

한인 2세 뮤지컬 전문팀 'Soli Deo Gloria'(오직 하나님께 영광)가 최근 재창단됐다.

Soli Deo Gloria 뮤지컬팀(단장 홍원오 전도사)은 SON Ministry(대표 김정한 선교사) 소속으로 지난 1998년도에 창단이 돼 2001년 12월에 “I am He is”, 2003년도 12월에 “OX”라는 2세들을 위한 뮤지컬을 바디워십 형식으로 라미라다 연극극장에서 공연을 한바 있다.

그 후에 한국 서초동 한전아츠폴센타에서 공연하고 브라질 상파울로에서도 해외 공연을 펼쳤다.

Soli Deo Gloria의 이 뮤지컬은 당시 한인교계에서 2세들이 최초로 만든 작품으로 상당한 반응이 있었고, 이후에 각 교회 2세들이 바디워십팀을 창단하는데 많은 기여를 했다.

이 뮤지컬팀은 문화예술 사역을 통해 2세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만들어 복음을 전하도록 하며, 동시에 예술에 대한 전문성과 영적 지도력을 개발해 다음 세대 지도자로 성장하도록 도움을 주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김정한 선교사는 2일 오후에 미주복음방송 세미나실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성령님의 은혜를 맛보면 세상 문화에 빠지지 않는다. 팀을 훈련시켜서 7월에 아이티로 선교 가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밝혔다.

홍원오 단장은 “뮤지컬팀의 특징은 사역보다는 2세들을 제자 훈련시키는 것”이라며 “팀원을 구성해 인내를 갖는 훈련과정을 거쳐 작품연습을 할 것이다”고 말했다.

Son Ministry의 대표 김정한 선교사와 Soli Deo Gloria 뮤지컬팀의 단장 홍원오 전도사

1차 오디션은 10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3시까지, 2차는 17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3시까지 SON Ministry(8382 Artesia Blvd. #H, Buena Park, CA 90621)에서 열린다. 오디션은 자신이 좋아하는 곡에 댄스, 노래, 장기 및 타악기 등을 준비하면 된다.

단원 모집 인원은 총 40여명이다. 대상은 초등학교 4학년 이상부터 중학생까지 20명, 고등학생 20명이며 자원봉사자 대학생 스탭 10명을 모집한다.

특전으로 고등학생들에겐 커뮤니티 봉사시간이 제공된다.

훈련은 24일에 시작되며, 매주 토요일 9시에 1교실, 오후 1시에 2교실이 준비돼 있다. 월회비는 $100이고, 훈련내용은 워십댄스, 연극, 악기훈련, 성경공부, 기도회, 전도 및 선교훈련 등이다.

홍원오 단장은 경희대 무용과 졸업, Nippon University 문리대학원 졸업, 88올림픽 개회식 지도, 올림픽 기장증(체육부장관), 서울 올림픽 공로표창(I.O.C 위원장), 88서울 장애자 올림픽 지도 등의 경력이 있다.

문의: 714) 522-7766

토마스 맹 기자

아이토크비비 iTalkBB 로컬/장거리/국제전화 무제한

중앙일보 “3년연속 통신부문 최고 히트상품”

집전화로 로컬, 장거리, 27개국 무제한 통화
+
외출시 휴대전화로 국제전화 500분 무료

마지막 기회! 지금 아이토크비비로 가입하시면, 3개월 무료!* (최대 $105 상당)

행사기간 2012년 3월 31일 까지

글로벌 플랜 Global Unlimited Plan $24.99/월 기타 수수료 포함
- 미국, 캐나다 전지역 무제한 통화
- 한국 포함 27개국 국제전화 무제한 통화
- 발신자 표시 기능, 착신전화 기능

글로벌 플러스 플랜 Global Unlimited Plus Plan $34.99/월 기타 수수료 포함
- 한국인만을 위한 아주 특별한 플랜
- 글로벌 플랜의 모든혜택은 기본
- 한국 휴대전화 까지 무제한 통화!

무료 부가서비스
- 휴대전화에서 매월 국제전화 500분 통화가능
- 한국 전화번호 제공**

[30일 환불 보장!] [디지털 시대 우리집 전화] 아이토크비비 1.800.872.2902 자세한 내용은 www.Korea.iTalkBB.com 에서 확인해주세요

1.800.875.8318 고객상담시간 : 365 일 오전 6 시 ~ 저녁 10 시 30 분 (PST)
지금 Facebook.com/iTalkBBkorea를 방문하셔서 아이토크비비와 관련된 최신 정보를 얻으세요.

아이토크비비 공인 가입센터 모집
가입센터 상담전화 : 703.348.7544

HQ HEALTH

당뇨, 고혈압, 변비에
효과가 너무 좋아
더욱 널리 소문난

HQ 구연산

국민 건강 식품입니다. 가장 저렴하면서도 가장 탁월한 효능의 구연산!

HQ 구연산 효과는 확실합니다! 자신있게 권합니다!

노벨상을 3회씩이나 수상한 경이로운 식품

Citric Acid

모든 구연산이 같은 것이 아닙니다. 효과가 다릅니다. HQ구연산은 낫지 않는 병이 없을 정도로 유명합니다.

8병을 100불에

(단, 200불 이상 구매시)
100불에는 7병,
한 병은 30불,
2병은 50불,

Kosher Approved
Organic/8온스(226그램) / 성분: 구연산 100%

HQ구연산은 매실의 80배, 레몬의 200배의 농도

한 병은 2-3개월분 / 7병은 1년 6개월분

자도자도 피곤, 만성피로는 만병의 근원

당뇨 / 고혈압 / 만성피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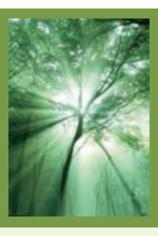
100% 환불 보장

100불 이상 구입시에 우선 한 병만 사용해 보세요. 어떤 질병일지라도 한 달 정도면 효과를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도 만일에 본인이 느끼기에 효과가 없다면 사용하시던 병은 다른 용도로 사용하시고 나머지를 가져 오시면 이유를 불문하고 100% 환불해 드립니다. HQ구연산으로 효과를 못 보신 분들께는 절대로 돈을 받지 않습니다.

노벨상 3회

- **바르다넨 박사** (핀란드 1945)
  구연산이 "구연산 사이클"의 열쇠가 되는 〈오기자로 초산〉이 되며 인체의 피로를 제거해 준다.
- **크레브스 박사** (영국 1953)
  구연산이 인체 내 피로물질인 젖산을 빨리 분해하고 축혁을 막아 피로회복과 신진대사를 원활하게 해주어 피로회복과 노화를 방지한다는 구연산 크레브스 사이클 이론으로 노벨 생리 의학상을 받았다.
- **브르크 박사, 린넨 박사** (미국, 서독 1964 공동수상)
  구연산은 체내에서 모든 영양물질을 완전 소화 흡수하여 인체내의 자연치유력을 최대로 하여 준다.

노벨상 홈페이지(www.nobelprize.org)를 방문해 검색란에서 Citric Acid를 검색해 보시면 금방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구연산은 약이 아니고 식품이면서 인체에 다음과 같은 도움을 준다.

◇ 구연산을 섭취하면 크레브스싸이클의 출발물질이 되어 신진대사가 원활하여짐과 동시에 인체 피로물질을 신속히 배출하고 혈액을 맑게 하여 순환을 도와 2시간 내에 피로한 기색이 사라지게 한다.

◇ 구연산은 음식물의 완전 흡수를 도우며 자연치유력에 또한 최대한 도움을 준다.

◇ 구연산은 입맛을 당기게 할 뿐 아니라 식품에 붙은 세균을 살균시켜 소화불량, 위장병을 없애주며 장내의 활동이 원활해지고 장벽을 깨끗이 청소해줌으로 변비를 없애준다.

◇ 구연산 속의 인디오텐신이라는 변환효소는 혈관의 수축작용에 관계하여 혈압을 모두 낮춰주는데 획기적이다.

◇ 당뇨병은 인슐린과 그 반대 역할을 하는 효소 간에 밸런스가 깨져 생기는데 구연산은 체내 세포 내의 혈액을 산성화시키고 근육을 굳게 하는 독극물인 젖산(유산)과 초성포도산(필빈산)을 태워 없애주면서 당뇨병을 호전시킨다.

◇ 구연산은 간장에 해로운 중성지방이 쌓이는 것을 막고 독소를 분해시켜 간장을 보호하며 간 기능의 부담을 없애준다. 또한 지방간이나 고콜레스트롤에서 해방되도록 해 준다.

◇ 구연산은 스트레스를 해소하고 술독과 담배로 인한 일산화탄소를 분해시켜 부부생활이 즐거워진다.

◇ 구연산은 정혈과 살균작용이 뛰어나므로 나쁜 피를 맑게 정화시켜 체외로 배출하는 역할을 한다.

◇ 구연산은 피부와 혈액순환과 밀접한 관계가 있으므로 알러지와 가려움증에 탁월한 효과가 있다.

◇ 구연산은 발암물질인 괴산화지질을 억제하고 세포의 신진대사를 활발하게 만들어 기미의 원인인 멜라닌 색소를 배출시켜 버린다.

◇ 구연산은 젖산을 분해시켜 근육을 유연하게 할 뿐 아니라 통증을 없애는 부신호르몬을 분비시켜 요통, 어깨결림, 오십견을 없애준다. 또한 심한 운동으로 인한 인대가 늘어나거나 발목 무릎, 허리 통증을 없애준다.

◇ 구연산은 유산이 체내에 축적되고 세포가 노화되어 동맥경화증, 고혈압, 간장병, 류머티즘 등과 같은 성인병의 유발과 노화의 원인인 유산을 분해시켜 피로를 없애주며, 산성화 된 인체를 약알칼리성으로 개선하여 준다.

◇ 혈액을 약알칼리성으로 유지하는, 즉 혈액을 맑게 하는 작용이 있으므로 자연히 신진대사를 활발하게 해주므로 신체의 모든 기능을 정상적으로 활동하게 한다. 인체 내 젖산 등의 피로물질을 분해하여 피로회복에 효과적이며 자연치유력을 최대한으로 높여준다.

◇ 만성신장병으로 신장의 기능이 저하, 부종, 고혈압, 전해질이상, 빈혈 등의 증상이 나타나고 그 정도가 심해 요독증에 이를 경우 신장의 기능을 최대로 증진시켜 노폐물이 쌓이지 않도록 도와주며 면역능력을 증진시킨다.

◇ 좌골신경통, 요통 등의 통증을 완화해 주는데, 이는 약알칼리로 체질개선이 되기 때문이며, 맑은 혈액으로 혈액순환을 좋게 하여 자연 치유력이 최대로 작용하기 때문이다.

◇ 숙취에 효과적이며 간기능을 강화시킨다. 또한 산성혈액을 정화하여 강한 체질, 항체체질로 바꾸는 작용을 한다.

구연산복용체험담

구연산 보급 30년에 각종 체험사례를 모았지만 너무 많아 이곳에 다 적지 못합니다.
구연산을 매일 2~3회 평생 드시면 암, 치매 등 예방하고 병원, 약값이 절약됩니다.

★ 늘 피곤하던 몸이 가뿐해지면서 삶의 활력이 넘쳐 좋았다.
★ 간질환을 앓고 있다가 구연산 덕분에 완전히 회복되었다.
★ 당뇨가 심했는데 복용 3일 후 뚝뚝 떨어져 당약을 조절함.
★ 혈압 200이 넘음. 복용 후 120정도. 이제는 혈압약 안먹음.
★ 누나의 소개로.. 지금은 보청기를 끼지 않아도 잘 들린다.
★ 신장염으로 온몸이 퉁퉁 부어 올랐는데 구연산이 낫게했다.
★ 여드름에 구연산 마사지를 해주니 맥 못 추는 것을 알았다.
★ 손, 발바닥 무좀을 구연산에 담갔더니 점점 회복이 되었다.
★ 방광에 대한 자각증상이 있었는데 장복 후 사라져 버렸다.
★ 대상포진으로 가려워 죽을 지경이었는데 먹고 바르니 나음.
★ 버섯이 구연산 복용 후 한 달이 지나 없어지거나 약해짐.
★ 비염,콧물 및 피부 알러지가 완전히 가셔서 계속 복용중임.
★ 7년간 피부암이었는데 3주 동안 먹는 것만으로도 치료됨.
★ 나는 다른 제품이 없어도 구연산만 있으면 건강하게 산다.
★ 아토피를 앓았는데 구연산 물을 먹고 바르면서 나아졌다.
★ 온몸에 진물을 동반한 두드러기와 가려움증이 사라졌다.
★ 나는 당뇨와 17가지 합병증으로 자살을 3번 시도했다.
★ 그러나 구연산 복용 후 2주 만에 완전 정상. 후에 목사 됨.
★ 린스처럼 사용했더니 탈모가 중지되고 가려움증이 없어졌다.
★ 요리할 때 식초 대신에 사용하니까 물기가 없어서 좋았다.
★ 당뇨로 잃은 왼쪽 눈, 두 달 만에 시력을 완전히 되찾았다.
★ 외출 시에 벌레물린 곳, 몸의 상처를 구연산으로 해결했다.
★ 가정상비약처럼 두고 항상 구연산부터 찾는 습관이 생겼다.
★ 전 농림부장관 30년 다른 약은 일체 끊고 구연산만 복용.
★ 피검사 후 혈액이 20대 같음. 얼굴에 검버섯, 기미 사라짐.
★ 79세인데 장기 복용하니 두뇌가 청년시절처럼 되돌아 옴
★ 파킨슨병으로 고생하다가 구연산 두 달 먹고 테니스도 친다.
★ 비염이나 콧물에 고생했는데 구연산 3개월 먹은 후 회복됨.
★ 통갈비, 잔갈비를 구연산에 재니 핏물이 빠지고 맛도 좋음.
★ 나물을 무칠 때 식초 대신 사용하면 훨씬 맛이 있고 좋음.
★ 밥을 할 때나 국을 끓일 때 구연산을 첨가하면 맛이 좋음.
★ 공부하는 아이에게 줬더니 졸지도 않고 집중이 훨씬 잘됨.
★ 운전할 때 구연산 물을 마시면 졸리지도 않고 피곤치 않음.
★ 눈이 침침할 때 구연산을 찍어 바르니 눈이 점점 밝아졌음.
★ 혀가 심하게 갈라져 약을 먹어도 안되는데 구연산이 해결함
★ 위장병으로 속이 무척 쓰렸는데 구연산을 복용하고 나아짐.
★ 50년된 만성변비가 구연산 3일 복용 후 정상 변을 보게 됨.
★ 허리통증, 어깨결림이 구연산 10일 복용 후 완전히 사라짐.
★ 오십견으로 고통이 심했는데 1주일 후 통증이 거의 없어짐.
★ 구연산 복용 45일 후 42인치 허리가 36인치로 줄어들었음.
★ 만성 아토피와 간암이 구연산 1년 복용 후 완전히 사라졌음.
★ 구연산 복용 후에 피부가 너무 좋아지고 얼굴색이 젊어졌음.
★ 양손가락이 완전히 오그라들었는데 6개월 후 완전히 펴졌음.
★ 다리가 저리고 걸을 수가 없었는데 보름 후 증상이 사라짐.
★ 유방암이 구연산만 장기 복용 후 완전히 사라짐. 목사 사모.
★ 구연산 장기 복용 후 눈의 시력이 몰라보게 좋아짐을 체험.
★ 10년간 사타구니의 피부암으로 고생하다가 점차 회복되어감.
★ 쌀이나 야채나 과일을 씻을 때 구연산으로 헹구면 농약 끝.
★ 만성피로와 간장질환을 구연산을 먹고 지방간도 낫고 회복.

수많은 체험사례들이 비디오로 준비되어 있습니다.
기막힌 체험사례들이 있으면 함께 나누도록 해 주세요.

(올림픽과크렌셔 북동쪽 코너 단층 상가건물)

HQ Health, Inc. / HQ 산삼

4125 W. Olympic Blvd., Los Angeles, CA 90019

L. A. 본 점 (213)365-2100
세리토스점 (562)760-2359
월-금: 10am-7pm, 토:10am-5pm